연구총서 2000～28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임 순 희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0년 6월 15일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 남북관계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써 대중문화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는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적극 도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를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 및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개념정의

사회과학의 많은 용어들이 그러하듯이 대중문화의 개념도 논자들 사이에 일치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향유되는 문화로 매스미디어와 대중소비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량문화라는 것 정도이다.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은 보편성, 규격화와 동질화, 다양성, 허구성, 이해와 수용의 용이성, 정치성, 변화와 창조성 등으로 설명된다. 또한 대중문화의 일반적 기능은 여론형성의 기능, 대중문화 소비자의 수동성 조장 및 강화 기능, 기존 가치질서에 대한 저항 및 도전의 기능, 지배가치의 정당화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체제 북한에는 서구적 개념의 대중문화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문예창작물에 대해 대중문화라는 용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 문예작품에서의 '인민성' 구현과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 견지'이다. 문예작품에서 인민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대중성과 통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인민대중의 지향과 감정에 맞으며 인민대중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 견지'란 음악, 영화, 소설, 시 그 밖의 모든 예술은 인민대중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되는 바,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작품, 인민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 및 기능에 근거하여 북한 대중문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북한의 대중문화란 북한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향유되며, 접근 및 이해가 비교적 수월한 문화로서 당·국가기관에 의해 양산되는 문화를 뜻한다. 또한 북한 대중문화의 주요 특성 및 기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의 주체 내지 수용자인 대중의 여론에 대해 폐쇄적이다. 둘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위로부터 강요되는 문화이다. 셋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분야와 소재 및 주제가 다를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 한결같이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넷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북한주민의 사회화 및 정치사회화의 주요매체로서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2.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이론적 근거

가. 주체의 문예관

북한의 문예관은 이른바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주체의 문예관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이 정립된 문예관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을 통한 주체사상의 구현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이라는 데에 근거하여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의 문예관이 지닌 의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 측면에서 강하게 드러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주체의 문예관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문학예술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체의 문예관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와 체제수호를 위한 문예부문에서의 사상 결속 및 통제의 일환책으로서 고안된 이론적 방편이라는 것이다.

나. 주체문예 건설의 기본원칙

(1)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에 대한 김일성의 방침은 김정일

에 의해 다소 수정·보완되며 1992년에 발간된 그의 저술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공식화되어 있다. 먼저 민족문화유산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 보존해두기만 할 유산, 그리고 없애버려야 유산 등이 그것이며, 이 가운데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전통을 이룬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민족문화유산과 이른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관계설정이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화유산과 그 이전 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이 있는데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도 민족문화유산 속에서 보아야 하며,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를 이룬다고 한다. 「주체문학론」에서 새롭게 공식화된 또 하나의 방침은 민족고전문학예술 유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은 현대적 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다.

(2) 주체사실주의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는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주체의 문예관과 마찬가지로 사상 결속 및 통제의 이론적 방편으로 등장한 주체사실주의는 「주체문학론」에서 그 나름대로의 문예사적 의의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의 차이 및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이라는 데에 문예사적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공통성을 계급적 이념과 사실주의적 형상방법에서 찾고 있으며, 차이점을 시대적 요구와 철학적

기초, 사람에 대한 관점 등에 근거해서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통성과 차이점을 토대로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의 관계를 '독창성을 기본으로 한 계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창작방법이며 문예창작에서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기본 명제는 문예 창작의 기본 지침에 그대로 반영되며, 특히 인간과 생활의 전형화에서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적 형식'은 일치한다. 그러나 두 방법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혁명적인 내용, 다시 말하여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체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주체사실주의가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다. 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1) 수령형상 창조

북한 문예창작에 있어 수령형상 창조란 수령의 존재를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에 따라 잘 형상하는 것을 말한다. 수령형상 창조에서는 사상이론가, 정치가, 통일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형상해야 하며,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야 한다. 또한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

우라 하더라도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며,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반영해야 하고, 작품의 양상은 밝고 숭엄해야 된다. 또한 수령형상 창조에서는 수령의 후계자형상 문제도 있는 바, 후계자의 형상을 창조할 때에는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

(2) 당의 위대성 형상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당의 위대성 형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조선노동당의 의의와 업적을 형상하는 것을 말한다.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는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려야 하고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내야 한다.

(3) 주체형의 인간정형 창조

북한 문예창작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품성을 잘 형상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형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해 나가는 과정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그려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형상해야 한다. 또한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니고 있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해야 하며, 특히 1990년대 들어

서 나타나고 있는 새 시대 인간의 새로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옳게 그려야 한다.

라. 문예창작의 기본원칙과 실천적 방도

(1) 기본원칙

(가) 종자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뜻하며, 종자는 작품의 사상, 주제 및 소재와 구별된다. 종자는 사상과 주제 및 소재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한다. 그리고 종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 주제, 소재의 유기적 연결 및 통일은 곧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종자론에서는 종자 선택이 “작품 창작의 출발점이며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고 한다.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올바른 종자 선택이란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종자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종자론은 당 정책적 요구에 맞고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종자는 현실과 생활 속에 있다고 한다.

(나) 속도전

문예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자각과 창작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

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당 사상사업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해 나가는 혁명적인 창작원칙이며 창작전투의 기본형식”을 뜻한다. 속도전의 요체는 단기간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속도전이란 단지 일을 빨리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에 맞추어 단기간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해 내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속도전 원칙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북한 문예창작에서는 ‘집체창작’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창작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다) 갈등해결

북한의 문예작품 창작에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대립과 투쟁으로 갈등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은 극적인 것을 형상하는데서 기본이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이기 때문에 북한 문예작품에서 갈등은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써 해결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 김정일의 담화 “연극예술에 대하여”에서는 작품구성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성격들의 직접적인 대립, 충돌과 같은 갈등구조를 지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을 취급한 작품, 특히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와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이 없이도 작가가 현실을 긍정하는 높은 열정을 가지고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 보여주면 극성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긍정을 내세우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된다는 주장이다.

(라)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은 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켜야만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사상성은 예술 작품의 가치 규정에 있어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이며 문학예술 작품의 본질적 내용을 표현하는 사상적 경향성을 뜻한다. 예술성은 문학예술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예술에 고유한 생활 반영의 특성 또는 예술작품의 사회적 의의를 규정하는 질의 높이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문학예술의 형상성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에서 핵은 사상성의 최고표현인 정치성이다. 이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사상성의 구현이라는 것과 종자 선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 당의 영도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란 작가, 예술인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 당적 통제는 당의 유일적 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의 유일적 지도란 곧 수령의 영도를 뜻한다. 북한 문예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작가를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로 준비시키고 그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는 문예부문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란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혁명적 군중

노선을 구현하여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지도체계"를 뜻하며, 주체적인 창조체계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전과정을 우리 식으로 조직화, 규범화한 창조체계"를 뜻한다.

(2) 실천적 방도

(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여타 사회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이며 당적 방침으로 되어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진 사회주의하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군중 교양의 위력한 방도로 되며,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도덕관념이 강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에 완전히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교양 방법이라는 것이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북한 문예창작의 실천적 방도로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 문예부문에서도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대중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다량 창작, 발표되고 있다. 북한 문학예술 작품에서 숨은 영웅과 숨은 공로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형상된다.

(나) 사회정치적 생명체 원리에 맞게 형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집단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원리는 북한의 주체 문예작품 창작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북한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 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바,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는 북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 수도 없으므로 문학예술이 북한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형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요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영원한 형상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영원한 형상원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구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는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말한다. 또한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발양에 있어 중요한 요건들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 체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으로의 무장,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강화, 그리고 혁명전통 계승 및 민족적 전통의 올바른 계승 등을 강조한다. 1980년대 말 이래 김정일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에서 공식화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북한체제

수호와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개발된 이념이다. 문예작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구현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한다.

(라) 현실 체험을 통한 창작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 목적은 인민 대중의 수요 만족을 통한 혁명적 교양에 있다. 소설, 시, 음악, 영화 그 밖에 다른 모든 예술은 인민 대중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따라서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작품 평가의 기본 척도가 된다. 이는 곧 작가, 예술인들이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이 이른바 '현실 체험'이다.

3 북한 대중문화의 실제

북한 대중문화 실태에 관한 실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북한의 음악과 영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대상 선정은 북한의 음악은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된 바 있으며, 영화는 앞으로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환경이 열악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난해하지 않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는 음악과 영화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악과 영화를 실제적 측면에서의 북한 대중문화 실태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가. 음악

주체음악 발전의 기본방침과 방향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창작에서의 주체성 견지 및 주체 확립이다. 둘째,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퇴폐적인 부르죠아 음악 배격이다. 넷째, 인민대중을 위한 음악 창작이다. 다섯째, 통속적인 혁명가요 창작이다. 여섯째, 음악의 대중화이다.

1990년대 북한음악의 특징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수령형상 음악'의 창작·보급이다. 둘째, 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가요의 창작·보급이다. 셋째,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이다. 넷째,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이다. 다섯째, 주제의 다양화이다. 여섯째,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의 창작·보급이다. 일곱째, 연변을 통한 남한 대중가요 및 외국가요의 유입이다.

나. 영화

영화발전의 기본방침과 방향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영화 제작이다. 둘째,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 제작이다. 셋째,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 교양을 위한 영화 제작이다. 넷째,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 제작·보급이다. 다섯째, 기록영화 제작이다. 여섯째, 영화에서 음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 영화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장편 시리즈 영화 제작·상영이다. 둘째, 김일성 찬양 및 김정일 형상화 작품의 제작·상영이다. 셋째, 대외교류 활성화 및 대내외 영화제 창설이다. 넷째, 영화 작품의 소재와 주제의 다양화이다.

4.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과 전망

가. 변화양상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서정성 강화, 작품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 대중성 강화를 통한 대중에의 영합 추구,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를 통해 북한 대중문화는 정치성과 사상성, 혁명성을 원색적·노골적으로 강조한 기존의 창작 경향을 벗어나 정치성과 사상성을 흥미와 오락으로 채색하여 간접적·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당국이 의도한 바대로 대중문화의 수용자인 북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북한이 대중문화 수용자인 일반 주민들의 기호와 욕구를 의식하여 외피적으로나마 대중성과 오락성을 강화하고, 소재 및 주제에 있어 다양화를 추구하며, 수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을 위한 작품창작을 위해 작가, 예술인들의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을 한층 더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위에서와 같은 변화를 통해 대중에게 접근가능한 대중문화 창작을 지향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문화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더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위에서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북한의 대중문화 수용자들은 작품 선택과 향유의 범위를 보다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작품 이해와 수용이 훨씬 더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문화는 수용자인 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 전망

1990년대를 통해 북한 대중문화에 있어 변화를 초래한 요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문물의 침투이다. 둘째, 경제난 악화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사상성·혁명성 약화와 정권 및 체제에 대한 불신 심화이다. 셋째,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염증 및 거부감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들에 근거해 볼 때, 1990년대를 통해 나타난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 및 추세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결론

서구적 개념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의 대중문화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북한 대중문화의 이질성만을 부각시키며 비판적 시각을 고수하려 하기보다는 북한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상호 접속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대중문화의 비정치적·이념적인 요소들은 적극 수용, 이해하는 한편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한 대중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향유하려는 노력이 적극 시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 대중문화를 정치사상 및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과 연구전개과정 ····· 3

Ⅱ. 개념정의 ····· 5

1. 대중문화 ····· 5

2.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 8

3. 북한의 대중문화 ····· 14

Ⅲ.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이론적 근거 ····· 19

1. 주체의 문예관 ····· 21

2. 주체문예 건설의 기본원칙 ····· 28

3. 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 40

4. 문예창작의 기본원칙과 실천적 방도 ····· 50

Ⅳ. 북한 대중문화의 실제 ····· 71

1. 음악 ····· 71

2. 영화 ····· 83

Ⅴ.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과 전망 ····· 94
1. 변화양상 ····· 94
2. 전망 ····· 101

Ⅵ. 결론 ····· 107

참고문헌 ····· 109

Ⅰ. 서론

1. 연구목적

1990년대 말 이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대중문화적 접근이 적극 시도되고 있음은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및 동질화 모색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은 본래의 취지 및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일회성 내지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뿐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은 대중음악 중심의 일회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항구적·지속적 교류·협력이 합의되어 실행되는 것은 없다.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남북한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이른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로 인한 체제붕괴를 우려하는 북한은 연방제 통일이 되면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화가 자연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논거하에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중문화 교류·협력 제의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실리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주제선정 및 행사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 장기적 안목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중문화 교류·협력이 공연예술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사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문화 교류·협력 주최 단체들 간의 공명심과 경쟁의식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제도화·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근원은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화에서 찾아진다. 이질적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인식 및 이해 부족 때문이다.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활성화에 있어서 근본장애는 대중문화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상호간 인식 차이와 대중문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상이함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북한이 상호간 삶의 양식을 인식·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남북한은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통해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상호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주민간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한간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를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사회 변화 및 체제개혁·개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및 화해·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접근의 확대·강화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이념적 논리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사회 변화 및 체제 개혁·개방의 확대·강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정치적 수단으로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들어 점증하고 있는 남북한간 대중문화 교류·협력을 보다 더 적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문화는 남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남북 주민간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합의·서명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의 책임있는 최고당국자가 합의·서명한 최초의 역사적 문건이며, 그 이행과정에 있어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근거로 할 때,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한간 제반분야의 협력·교류 활성화”의 전망은 매우 밝으며, 특히 대중문화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는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적극 도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 및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전개과정

연구방법은 북한원전과 관련 문헌을 주요자료로 하고 탈북자 및 방북자의 증언을 보충자료로 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자료인 북한의 음악과 영화는 주로 199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다.

북한의 대중문화는 북한주민의 사회화 및 정치사회화의 주요매체로서 지배이데올로기 내지 지배가치의 정당화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음악, 영화, 소설, 텔레비전·라디오방송 등과 같은 공식 대중문화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비공식 대중문화로 개념상 구분되어 연구·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연구목적 및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식 대중문화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의 공식 대중문화만이 교류·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먼저 대중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에 관해서 논한다. 다음으로는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정의와 특성 및 기능에 의거하여 북한의 대중문화를 개념정의하고 북한 대중문화의 주요 특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 본다. 제3장과 제4장은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에 관한 분석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이론적 근거인 북한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실태를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대중문화의 실제는 음악과 영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을 논하며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북한 대중문화 수용의 바람직한 자세와 이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Ⅱ. 개념정의

1. 대중문화

대중문화[1]는 외래 개념이다. 영어 표기인 popular culture, mass culture, mass art, popular art 등을 우리는 모두 대중문화라고 번역, 표기한다. 따라서 '대중문화' 개념을 이해·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문화의 '대중'을 매스(mass)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포퓰러(popular)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에서부터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매스 컬처(mass culture)와 포퓰러 컬처(popular culture)는 다른 의미로 풀이되며 다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스 컬처와 포퓰러 컬처에 관한 논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매스 컬처가 좀 더 정확한 용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화가 츄잉껌처럼 순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량소비를 위한 상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2] 또한 고급문화의 산물도 때로는 대중적이며, 매스 컬처라는 말

1) 문화 정의에 있어 일반적 세 가지 범주: ①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어떤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상태를 의미. ②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기록된 지적·상상적 작업의 유기체를 의미,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 ③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를 의미,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 방식. R.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1965), p. 57.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에서 '문화'는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을 의미하거나, 또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 있어 문화의 의미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2) Dwight MacDonald, "대중문화의 이론,"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서울:

이 대중적 소비라는 의미에 가장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스 컬처라는 용어가 대중문화 개념에 보다 더 정당하다고 말한다.[3] 이에 대해 포퓰러 컬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확실히 매스 컬처란 말은 경멸조의 말이다. 매스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원이라기보다는 분별없는 군집이며, 심지어는 폭도라는 뜻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매스 컬처란 폭도의 비문화성을 뜻하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 반해서 '포퓰러 아트'(popular arts)나 포퓰러 컬처같은 용어는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4]라고 주장한다. 매스 컬처는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다수에 의해 수용되는 문화라는 가치부정적 문화로 비판되는 데 반해 포퓰러 컬처는 가치중립적 내지 가치긍정적 문화로 평가를 받는 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스와 포퓰러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 용어의 차이를 지적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 본질보다는 어감에 따라 차이를 강조한다.[5]

대중문화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대중문화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향유되는 문화이다. 대중문화란 말에서 '대중'이란 용어가 양적으로 큰 범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6] 대중문화는 일반적으로 넓게 확산되어 있으

나남, 1989), p. 45.

3) 허버트 J. 갠스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서울: 나남, 1998), p. 29.

4) 위의 책.

5)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의 차이에 대해서는 Donald Dodson, "Differentiating Popular Culture and Mass Culture," in Everette E. Dennis et al. (eds.), *Enduring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78) 참조.

6)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 19.

며 동의되고 있는[7] 문화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문화는 중산층의 문화를 일컫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와 대중소비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량문화이며 어쩔 수 없는 상업문화이다.[8] 대중문화는 대량소비를 위해 대량생산된 상품화된 문화이며 관중은 무분별하고 수동적인 대량소비자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중문화를 상품화된 문화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상품처럼 대중문화의 기호도 인위적으로 조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중문화의 산물은 그 작품 자체에 관객 스스로가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의 반응까지도 작품속에 포함되고 정해진다는 것이다.[9]

셋째, 대중문화는 위로부터 강요되는 문화이다.[10] 대중문화는 기업인이 고용한 기술자에 의해 가공된 것이며, 대중문화의 수용자는 수동적이기만 한 소비자들이고, 대중문화에 군림하는 기업주들은 그들의 이윤만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국가의 경우는 오직 상류계층의 지배적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악용하며 대중문화를 정치적 지배도구로 이용한다고 한다.[11]

넷째, 대중문화는 '민중'(the people)으로부터 발생되는 문화이다.[12] 대중문화는 민중의 진정에서 우러난 문화, 민속문화로서의 대중문화

---

7) Russel Nye, *The Unembarrassed Muse: The Popular Arts in America* (New York: Dial Press, 1970), p. 1.
8)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p. 23.
9) Dwight MacDonald, "대중문화의 이론," p. 49.
10) 위의 글, p. 46.
11) 위의 글.
12)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p. 25.

이며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문화이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항적 문화라는 것이다.[13]

다섯째, 헤게모니 이론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사회 피지배계층의 저항력과 지배계층의 통합력 사이의 투쟁의 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뜻으로서의 대중문화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강요된 대량문화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항의 문화들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중문화는 이 둘 사이의 교환이 일어나는 영역이며, 이 영역은 저항과 통합으로 표현된다고 한다.[14]

사회과학의 많은 용어들이 그러하듯이 대중문화의 개념도 논자들 사이에 일치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향유되는 문화로 매스미디어와 대중소비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량문화라는 것 정도이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은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에서 보다 더 다양하게 구체화된다.

2.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가. 특성

대중문화의 특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보편성에 있다. 대중문화는 엘리트와 대중, 모두가 접하는 보편적인 문화라는 것이다. 또한 대중문

---

13) 그러나 또 다른 논자는 일반서민의 문화였던 민속예술(folk art)은 하위계층으로부터 생성되어 왔으며 자발적·토착적인 표현이고, 고급문화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하위계층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이자 예술인데 반해 대중문화는 기껏 고급문화를 천박하게 모사한 것일 따름이라고 말한다. Dwight MacDonald, “대중문화의 이론,” pp. 46~48.

14)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pp. 26~27.

화는 그 보편성으로 인해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규격화와 동질화라는 또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 다수의 수용자를 겨냥해 매스미디어와 대중소비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문화는 규격화된 상품이며,[15] 수용자의 평균취향에 맞도록 그 내용과 수준이 표준화, 동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문화의 규격화 및 획일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역설적인 현상으로서 오늘날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경향이며 대중문화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16] 대중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허구성이다. 또한 대중문화의 허구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삶의 비현실화'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매체가 주는 심각한 영향은 사람들이 생의 현실과 미디어의 허구를 혼돈할 우려가 아니라 미디어의 허구적인 상황에다 자신의 실제의 삶을 집어넣으려는 '삶의 비현실화'(derealization of life)에 문제가 있는 바, 모든 대중매체는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자신을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17] 위의 내용들은 대중문화에 있어 이른바 예술성의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대중문화 내용물에서 예술의 참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대중문화는 각종 매스미디어에 실려서 대중문화의 참모습, 즉 표준화, 규격화, 보수성, 허구, 조작된 소비성 상품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18]는 것이다.

---

15) 아도르노(T. Adorno)는 대중음악의 특징 가운데 첫번째로 규격화를 지적하고 있다. T. Adorno, "On popular music," Simon Frith, Andrew Goodwin, (eds.), *On Record: Rock, pop, and the written word* (London: Routledge, 1990) 참조.

16) 대중문화의 다양성 추구는 획일화된 대중문화의 내용에 식상한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대중매체의 노력들에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p. 13.

17)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pp. 102~104.

대중문화 비판론자들은 대중문화의 상대적 개념인 고급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대중문화의 비예술성 내지 저급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그들의 비판에 따르면 고급문화는 개별적인 창조활동의 결과인데 반해 대중문화는 시장성 때문에 값싸게 제조되는 대량 상업적 문화이며, 진실한 예술은 인간의 판단력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는 데 반해 대중문화는 판단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서, 결국 대중문화는 '인간 사고와 표현의 정수'인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한 B급 문화라고 한다.[19] 또한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의 타락이며 통속화이고[20] 고급문화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대중문화로 인해 고급문화가 저속해진다[21]라고 하며 대중문화의 상대적 열등성을 지적하기도 한다.[22] 그러나 대중문화의 주체는 평범한 다수이며, 대중문화는 그들에 대해 개방적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순수성 내지 고급예술을 지향하기보다는 평범한 다수, 곧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작품 창작을 지향하는 바, 구성 및 내용이 복잡난해하고 추상적이기보다는 비교적 단순하고 구체적·현실적이며 이해가 용이한 내용물을 만들어낸다. 이는 곧 대중문화의 특성에 있어 이해와 수용의 용이성을 뜻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중문화는 비예술성, 저급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18) 허버트 J. 갠스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p. 40.
19)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p. 23.
20) 강현두, "대중문화의 쟁점,"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p. 199.
21) 허버트 J. 갠스,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p. 37.
22) 포스트모더니스트(postmodernist)들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화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문화이며 상업문화라고 주장한다. 또한 갠스(Herbert J. Gans)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는 모두 취향문화(taste culture)로서 오락, 정보, 인생의 미화의 기능을 수행하며, 나름대로 취향이나 미학적 기준 및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위의 책, p. 29.

대중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정치성이다. 대중문화의 정치성은 대중문화를 지배적인 가치구조의 표현, 또는 지배적인 가치가 되려는 것들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그 의미가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의 정치성은 대중문화가 지배가치의 표현이라는 점, 동시에 지배가치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나 잠재력을 지닌 가치를 반영하기도 하여 이 양자가 세력화를 둘러싸고 경쟁한다는 점, 지배가치라는 것이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영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23] 대중문화의 주요 특성 가운데 또 하나는 변화와 창조성이다.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인기있는 텍스트나 실천행위도 아니며 또 역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적 범주도 아니다. 정치(精緻)한 이론적 탐사의 대상인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또한 이론적인 작업 그 자체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24]

나. 기능

대중문화의 기본적인 사회기능은 그 사회의 인간성에 대한 가장 폭넓은 의미들을 모든 사회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금 그들을 도와 인간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념들이 요구하는 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25] 이와 같은 사회기능은 위에서 밝힌 바, 대중문화는 일반적으로 넓게 확산되어 있으며 동의되고 있는 문화이고, 보편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대중문화의 주체는 평범

23) 전경옥, "남북한의 대중문화,"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 228.
24)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p. 33.
25) George Gerbner, "대중문화 속의 개인,"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p. 182.

한 다수이며 대중문화는 그들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대중문화의 일반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여론형성의 기능이다. 이는 대중문화란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향유되는 문화이며, 보편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며 독재자의 선동정치가 지배적인 폐쇄사회에서는 대중문화의 여론형성의 기능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문화 수용자의 수동성을 근거로 대중문화의 부정적 기능을 논하고 있는 다음의 인용문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대중문화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면 문화, 문명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수동성을 조장하여 전체주의에 이르게 될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수동적인 수용자는 독재자의 선동을 위한 대중설득 기술에 쉽게 말려들게 된다.[26]

> 다수의 대중문화는 항상 소수 권력층의 관심거리였다. 정치권력을 쥔 자들은 항상 권력이 없는 자들의 문화를 정치적 불안의 징후로 보고 보호와 간섭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7]

또한 로젠버그(Bernard Rosenberg)는 "최악의 경우, 대중문화는 우리의 취향을 백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을 잔인하게 하여 전체주의를 가능케 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경고한다.[28] 위의 인용문들에서 나타나는 바, 대중문화의 또 다른 기능은 대중문화 소비자의

---

26) 허버트 J. 갠스 저, 강현두 역, 「대중문화의 고급문화」, p. 38.
27) 존 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p. 37.
28) Bernard Rosenberg, "대중문화 비판론,"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p. 211.

수동성 조장 및 강화이며, 이에 관해 아도르노(T. Adorno)는 대중음악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중음악은 수동적 청취를 조장한다. 대중음악의 소비는 수동적·반복적이어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한다"[29]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 소비자의 수동성 조장 및 강화 기능은 다름아닌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기존질서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조장·강화하는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중문화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기존 가치질서에 대한 저항 및 도전이다. 이 때의 대중문화는 민중의 진정에서 우러난 문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문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항적 문화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 것이라 하겠으며, 대중문화의 개방성 및 정치성, 그리고 변화와 창조성에서 비롯되는 기능이라고 하겠다. 대중문화의 또 다른 기능은 지배가치의 정당화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이다. 이는 구소련의 대중문화를 비판한 맥도날드(Dwight MacDonald)의 글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 오히려 소련이 미국보다 더 대중문화적이다. 그러나 소련의 대중문화는 오락이기보다는 선전과 교육의 하나이며, 그 형태도 미국과는 정반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대중문화도 고급문화 혹은 민속문화에 대항하는 대중문화적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소련의 대중문화도 지배계급에 고용된 기술자들에 의해서 대량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또 이는 예술가 자신의 표현이거나 일반서민 자신들의 표현이지도 않다. 비록 상업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이지만, 소련의 대중문화도 미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대중욕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30]

---

29) T. Adorno, "On popular music," Simon Frith, Andrew Goodwin (eds.), *On Record: Rock, pop, and the written word* (London: Routledge, 1990) 참조.

3. 북한의 대중문화

단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체제 북한에는 서구적 개념의 대중문화가 없다. 이른바 '주체문예'라고 하는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과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당적통제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창작·배포되며,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한 성분별 계층화 및 계급화에 따른 차별정책으로 인해 대중문화의 보편성마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또한 대중문화란 고급문화의 상대적 개념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서구학자 중심의 대체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북한의 문예창작물을 일컬어 '대중문화'라고 한다는 자체가 말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대중문화의 개념은 논자들 사이에 통일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특히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한가"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에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 구체적인 실례로서,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에서 생긴다"는 가정에 대해 로젠버그는,

> …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느리게든 빠르게든 적당한 기술적인 기계장치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대중문화는 번성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국가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소련에서만큼 더 대중문화적인 곳도 없다. 음악·예술·사상이 독재자의 유치한 생각에 일치되기만 하면 공공연히 표현되곤 하는 대중문화의 가장 나쁜 특성을 정확히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소련을 뚜렷한 사례로 들 수 있다.[31]

---

30) Dwight MacDonald, "대중문화의 이론," p. 47.
31) Bernard Rosenberg, "대중문화 비판론,"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p. 215.

라고 말하며, 위에서 인용한 구소련의 대중문화를 비판한 맥도날드(Dwight MacDonald)의 글도 로젠버그와 유사한 견해이다. 또한 적지않은 논자들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32] 실제로도 최근들어 이른바 고급문화의 대중 영합 내지 대중화 추세가 더해가고 있음을 볼 때,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은 그 의미가 거의 퇴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3]

그러나 북한의 문예창작물에 대해 대중문화라는 용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북한 문예작품에서의 '인민성' 구현에서 찾아진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문예작품에서 인민성 구현이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작품창작을 말하며, 인민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성'과 '통속성'이다. 따라서 문예작품에서 인민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대중성과 통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인민대중의 지향과 감정에 맞으며 인민대중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북한 문예창작의 실천적 방도 가운데 하나인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 견지'도 북한의 문예창작물에 대해 대중문화라는 용어 사용을 가능케 하는 주요 근거이다.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 견지'란 음악, 영화, 소설, 시 그 밖의 모든 예술은 인민 대중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되는 바,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작품, 인민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북한은

32) 10쪽의 각주 22) 참조. 대중문화는 과거 단절적인 두 문화인 고급문화와 서민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특유한 개념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p. 15.

33) 따라서 북한의 문예창작물을 '북한의 대중문화'로서 논하기 위해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북한의 고급문화를 개념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 견지’를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진지한 현실체험과 인민 생활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통한 창작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대중문화는 순수성 내지 고급예술을 지향하기보다는 평범한 다수, 곧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작품 창작을 지향하며, 구성 및 내용이 복잡난해하고 추상적이기보다는 비교적 단순하고 구체적·현실적이며 이해가 용이한 내용물을 만들어낸다. 이는 곧 대중문화의 특성에 있어 이해와 수용의 용이성을 뜻한다고 할 때, 북한이 주장하는 바,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여 인민성을 구현한 북한 문예창작물에서도 대중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글의 연구목적은 북한사회에 서구적 개념의 대중문화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밝혀 논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의 문예창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된 바 있거나, 앞으로 남한 대중문화와의 교류·협력 성사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문예창작물에 대해 ‘대중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무리(無理)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판단하에 이 글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대중문화의 개념정의와 일반적 특성 및 기능에 근거하여 북한 대중문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북한의 대중문화란 북한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향유되며, 접근 및 이해가 비교적 수월한 문화로서 당·국가기관에 의해 양산되는 문화를 뜻한다.

북한 대중문화의 주요 특성 및 기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의 주체 내지 수용자인 대중의 여론에 대해 폐쇄적이다. 북한은 음악, 영화, 연극, 소설 등을 당의 문예정책과 해당기관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의도적·획일적·일방적으로 창작, 배포함으로써 대중의 여론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대중화' 방침에 의거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예창작물을 공모하는 등 개방적인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

둘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위로부터 강요되는 문화이다. 이는 공산국가의 대중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북한 역시 소수의 특권층이 자신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악용하며 대중문화를 정치적 지배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일반주민들에 대해 당·국가에서 지정한 가요를 의무적으로 배워서 노래하게 하며 당·국가에서 지정한 영화를 의무적으로 관람하게 하고 있음은 이를 말해 주는 구체적 실례이다.

셋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분야와 소재 및 주제가 다를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 한결같이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당과 수령의 뜻 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당과 수령의 은덕과 배려에 대한 감사 등이다.

넷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북한주민의 사회화 및 정치사회화의 주요 매체로서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 김일성은 "작가들은 인민들속에서 우리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열렬한 선전자이며 군중을 교양하는 참다운 교양자입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에게 옳게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34] 라고 밝힌 바 있다.

---

34) 김일성,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56.

다섯째, 북한의 대중문화는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예술은 당의 위력한 정치사상 교양 수단의 하나이므로 문학예술인들은 '당과 인민의 이익의 옹호자,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35]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문학예술인들에게는 '당의 정책적 요구와 정세의 흐름을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35) 최길상,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 「조선문학」 (1998. 7), p. 18.

Ⅲ.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이론적 근거

지난 30여 년 이상 북한의 문예부문 활동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문예는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음은 주지하는대로이다. 현재 북한의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선 것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여 후계자 지위 구축을 본격화한 것은 1973년 당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선전 담당비서로 선출되면서부터이며, 이 때로부터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와 함께 당·정·군에 걸쳐 명실공히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기까지 김정일은 당의 선전선동 및 문예부문 장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 지도체제화는 그가 1960년대 후반 이래 전개된 문예부문에 대한 혁명을 주도하면서 본격화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 김정일은 '영화예술론'[36]을 비롯한 문예이론 저술들과 담화,[37] 그리고 문예작품 창작에 대한 지도를 통해 북한 문예혁명을 주도하였으며,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옮

36) 북한은 「영화예술론」에 대해 "문헌은 주체의 공산주의적문학예술, 영화예술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 영화예술 건설과 창조를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라고 평가한다.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50.

37) 김정일이 1964년 4월부터 1973년 사이에 발표한 전체 저작의 76%(83편)가 사회문화 관련문건이며 이 가운데 68편이 문예관련 문건으로 이 시기 전체 저작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9~50 참조.

긴 혁명소설, 혁명영화의 출현과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연극의 탄생을 문학예술혁명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자부하였다.[38] 북한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 지도체제가 구축, 공고화되는 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문예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보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적'이 빈도수를 더해감에 따라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 지도체제 구축 및 공고화가 뚜렷하게 가시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후 김정일의 문예부문 지도 내지 지적이 곧 당의 문예정책과 문예창작의 기본원리로 절대화되면서 김정일에 의한 북한 문예부문 장악은 일단락 짓게 된다. 김정일이 문예부문 장악에 주력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문예부문 장악에 힘을 쏟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당·국가의 선전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도구로서 문예 활용 가치의 극대화를 노린 때문이며, 북한의 문예관과 문예정책, 그리고 문예의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6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 온 김정일의 문예부문 지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어 발표된 그의 저술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바, 1992년 5월의 「무용예술론」, 1992년 6월의 「미술론」, 1992년 6월의 「음악예술론」, 1992년 7월의 「주체문학론」 등이 그것이다. 이 저술들은 무용, 미술, 음악, 문학 등

38) 김정일은 문학예술혁명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4.

예술의 각 장르를 주체사상과 주체미학에 입각하여 재구성한 이론서들이며, 특히 맨 끝으로 발간된 「주체문학론」은 1980년대 후반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북한 문예의 모든 분야가 견지해야 할 주체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및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표적 문예이론 저술이다. 북한도 「주체문학론」에 대해서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와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하신 백과전서적인 불멸의 문학총서"[39] 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이론적 근거로서 북한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주체의 문예관, 주체문예 건설의 기본원칙, 문예창작의 기본과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과 실천적 방도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주체문예 창작에 관한 북한의 공식입장과 관점을 준거로 한 것이며, 내용 분석 역시 북한 원전을 중심으로 구체화·체계화하고자 했다.

1. 주체의 문예관

북한의 문예관은 이른바 '주체의 문예관'이다. 북한은 주체의 문예관을 일컬어 "지난날 사회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던 선행로동계급의 문예관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중심의 문예관"이며, 주체의 문예관이 밝혀진 것은 "온 세계 인류앞에 자주

39)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조선문학」 (1997. 1), p. 6.

시대의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리정표로 된다"[40]라고 말한다. 또한 북한은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기초하여 물질경제적조건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문예관으로부터 사람, 근로인민대중중심의 문예관으로의 전환, 이것은 혁명적문예관의 가장 높은 경지에로의 완성을 의미하는것이며 문학리론전반에서 전면적혁신의 관건적고리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으로 되고, 이와 같이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함으로써 새 시대의 문학리론은 주체의 요구를 구현한 혁신적이며 완성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었다"[41]라고 주장한다.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바, 주체의 문예관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주체의 문예관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이 정립된 문예관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을 통한 주체사상의 구현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속성은 「주체문학론」에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다.

> 우리 시대는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를 안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드팀없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려는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력사의 새 시대는 새로운 문예관을 요구한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

40) 위의 글.
41) 리수립,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조선문학」 (1992. 10), pp. 23~24.

> 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42]

시대적 요구에 따라 김정일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주체의 문예관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43]

첫째,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라고 한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문예관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체의 문예관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의 철쇄와 예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민대중의 기본요구이었으나,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 앞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바,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예관을 튼튼히 세워 현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요구에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에 대한 관점과 입장에서 노동계급적 성격을 체현하고 있다고 한다. 부르죠아문예관은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문학예술을 부르죠아계급의 향락과 이윤추구의 수

---

42)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4~5.
43) 주체의 문예관의 주요논지는 「주체문학론」 제1장 제1절 “새 시대는 주체의 문예관을 요구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였다.

단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 작용을 하는데 반해, 노동계급의 문예관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성과 가치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넷째, 주체의 문예관은 문학예술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문예관이라고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그 나라 인민의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옳게 반영하였는가, 형상에 민족적인 맛이 있는가 하는 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아무리 종자가 좋고 사회적 문제성이 있는 작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게 형상되지 못한 것이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문학을 일컫는다. 주체의 인간학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보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주체로 형상하며, 그러한 인간의 전형은 바로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라고 한다.

여섯째, 주체의 문예관은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보고 대하며 그릴 것을 요구하는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아름다운 것이란 자주적 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뜻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 것만큼 그것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자주적인 인간의 생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44]

---

44) 아름다운 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은 이른바 '주체의 미학관'을 토대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적관점을 확립하였다고

일곱째,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먼저 주체의 문예관은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사색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을 혁명사업으로 여기는 작가, 예술인이라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창작의 주인인 작가, 예술인들의 문예관 정립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체적 문예사상과 주체적 문예이론으로 무장할 것, 주체적 문예활동 방법의 본질과 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사업하고 창작할 것,[45]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확립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맑스-레닌주의는 사회현실을 물질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문예관의 근본으로 삼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유물변증법적 세계관과 반영론의 원리를 초석으로 삼은 종래의 문예관은 결국 인간세계를 물질경제적 조건을 위주로 보고 그리며 역사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반영함으로써 문학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의해 사

주장하는 주체의 미학관은 자연의 아름다운 것보다 사회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을 기본으로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미학관은 자연미보다 사회생활의 미, 투쟁의 미를 더 귀중히 여기고 인간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개척해나갈 것을 요구하며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것의 사회적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p. 13~14 참조.

45) 당사상사업의 한 부분을 이루는 문학예술창작은 사람의 사상을 다루며 그들의 생활에 심각한 정치사상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인 것만큼 오직 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2.

람이 자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 원리가 밝혀짐에 따라, 문예부문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문학예술을 대하고 미의 본질을 밝히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의 본성을 고찰하는 혁신적인 관점과 견해'를 정립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바로 '주체의 문예관'이라고 한다.

일컬어 주체의 문예관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이라는 데에 근거하여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의 문예관이 지닌 의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 측면에서 강하게 드러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주체의 문예관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문학예술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당·국가의 지도원리이며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절대적 행위규범 내지 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수령관'이며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귀결된다.[46] 따라서 문학예술에서의 주체사상 구현이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을 의미하며, 주체문예 건설의 기본원칙에 있어 '수령형상창조'가 으뜸으로 강조되고 있음은 이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둘째, 주체의 문예관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와 체제수호를 위한 문예부문에서의 사상 결속 및 통제의 일환책으로서 고안된 이론적 방편이라는 것이다. 주체의 문예관이 정립, 구체화된 1990년대 초는 북한 사회주의헌

4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p. 124~159 참조.

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의 독창적 혁명이념성이 강조되고[47]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 강화되는 시기였으며, 또한 1980년대 말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탈이데올로기적 국가간 화해·협력 등 국제정세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불리하게 조성됨에 따라 북한내부에 체제위기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와 사회주의 수호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내부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심화되었는 바, 문예부문에서의 사상 결속 및 통제의 일환책으로서 주체의 문예관을 정립, 구체화해 나갔다고 보는 것이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문학예술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민족적 특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은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 해주며, 또한 「주체문학론」의 서두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말살하고 부르죠아문학예술을 퍼뜨리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우리의 문학예술은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원칙성과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력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48]

---

47) 1972년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으나, 1992년 개정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48)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3~4.

2. 주체문예 건설의 기본원칙

가.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

1973년 발간된 북한 「정치사전」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한 민족이 오랜 력사에 걸쳐 이룩하고 후대들에게 남겨놓은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에서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49]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에 대한 김일성의 '창조적 방침'에 따라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50] 하며,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에 있어서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떠난 복고주의적 사상조류와 허무주의적 경향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에 대한 김일성의 방침은 김정일에 의해 다소 수정·보완되며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공식화되어 있다.[51] 먼저 민족문화유산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 보존해두기만 할 유산, 그리고 없애버려야 유산 등이 그것이며, 이 가운데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전통을 이룬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민족문화유산과 이른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관계설정이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화유산과 그 이전 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이 있는데 혁명적 문학예술

4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6.
50) 「김일성저작선집」제5권, p. 459.
51)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59~90 참조.

전통도 민족문화유산 속에서 보아야 하며,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를 이룬다고 한다.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질적 내용에서나 그 가치와 생활력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 검토 총화하고 자주 시대의 새로운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되었기 때문에,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 우수한 내용을 집대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유산이 도달할 수 없었던 문학예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민족고전문화유산은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하지만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의 원형이며 그 명맥을 이어주는 핏줄기이자 만년초석이고, 명실공히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고 한다.[52] 또한 북한은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당의 일관된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의 옹호고수 및 계승발전이 주체적 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체문학론」에서 새롭게 공식화된 또 하나의 방침은 민족고전문학예술 유산에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은 현대적 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다.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개개의 유산을 해당 시기의 사회역사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공정하게 분석 평가해야 하며, 유산 계승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시대

52) 위의 책, pp. 61~62.

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산의 계승발전에서는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족문학예술유산을 계승한다는 구실밑에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고 지난 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미화분식하는 복고주의와,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고 과소평가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며 민족고전문학예술작품을 주체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민족문화유산의 주체적 입장에서의 비판적 계승발전이라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카프 문학, 신경향파 문학 등 과거 진보적 문학과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 실학파문학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의 저명한 작가, 예술인들의 작품과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등과 같은 작자미상의 작품도 많이 찾아내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체문학론」에서는 문학뿐만 아니라 민요를 비롯한 민족음악유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궁중음악, 궁중무용 등 궁중예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대한 김정일의 방침은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의 옹호고수와 계승발전,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 의거한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리 등으로 집약된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혁명적 문학예술만을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인 '전통'으로 규정하고 여타 민족문화는 '유산'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으로서 혁명적 문학예술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에서 당성[53]의 원칙을

삭제하고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하에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한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을 강조하며, 60년대 중반 이래 한동안 격하되었던 과거 진보적 문학을 비롯해 민족음악, 궁중예술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의 의의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 데에 있다고 한다.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문학론」은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은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민족문화를 개화 발전시키는 데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할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 고수, 그리고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배격을 통한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이라는 기치 아래 북한이 그동안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해 왔던 민족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음은 북한 문예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54] '민족제일주의[55]에서 요체는 "김일성에 대한 자랑의 감정"이다.

---

53)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의미하며, 당성의 최고표현은 김일성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그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그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정치사전」, p. 255.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에서 당성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당적 입장과 혁명적 관점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분석, 평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이란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진보적, 인민적'인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뜻하며, 이른바 '김일성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 주체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56]이다.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고 주체적 문예사상을 사상미학적 기초로 하여 창시"[57]되었다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는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58] 그러나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실주의의 사상이론적 기초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과 그것을

54)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김일성과 함께 혁명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 김일성이 세워준 사회주의제도에서 산다는 우월감, 김일성의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위의 책, p. 429.

55)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한다.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통일원 정보분석실, 「김정일 주요논문집」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3), pp. 174~176.

56) 리수립,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희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p. 25.

57) 장형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 의의," 「조선문학」 (1997. 4), p. 12.

58)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91~116 참조.

진수로 하는 주체적 문예사상에 의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체사실주의를 특징짓는 선구자적 작품도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에 의하여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북한의 문학예술을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철저히 구현된 새형의 문학예술로 발전시켰는 바, 197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문학예술은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주체적 문학예술로서의 새로운 성격과 체모를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사실주의의 높은 단계인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창조된 것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중요한 업적"[59]이라는 것이다.

주체사실주의가 「주체문학론」에서 공식화되기 전까지 북한의 문예창작방법은 일반 사회주의 문예이론이 창작의 기본원리로 표방해 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였다. 이를 말해주는 구체적 실례로서 김정일은 1967년 '인간 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라는 한 담화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최근 문학예술 작품 창작에서 나타난 결함과 과오의 본질과 원인을 인식하여 문학예술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방법에 기초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일성 또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이 있는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 수 있다"[60]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주체문학론」이 발간되기 직전에 발표된 북한의 한 논문에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이 북한의 유일한 문예창작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

59) 위의 책, p. 69.
60) 「김일성저작선집」3권, p. 129.

>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창작방법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같이 그처럼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거대한 형상적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창작방법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다.[61]

북한이 1990년대 초까지 고수해 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대신 주체사실주의를 거의 같은 시기에 공식화하고 '주체시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작용한 배경적 요인은 위에서 밝힌 '주체의 문예관'이 새롭게 정립, 구체화되는 데에 작용한 배경적 요인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체제동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일로 하여금 북한 문예부문에 대한 사상적 결속 및 통제를 위해 새로운 용어를 개념화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로서 주체사실주의가 공식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62] 그러나 주체의 문예관과 마찬가지로 사상결속 및 통제의 이론적 방편으로 등장한 주체사실주의는 「주체문학론」에서 그 나름대로의 문예사적 의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의 차이 및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이라는 데에 문예사적 의의를 두고 있다.

---

61) 김정웅, "문학예술분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조선어문」 (1991. 3), p. 3.

62) 김재용교수는 북한문예학계가 주체사실주의를 표방하게 된 이유로서 "사회주의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존재가치가 다했다는 문학외적 사실의 대두"를 들고있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라 동구권에서 사회주의리얼리즘 미학이 폐기되자 북한은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어개념을 새롭게 내세웠다는 것이다. 김재용, "1990년대 전반기 북한문학과 이후의 전망," 「북한문화연구」제2집, p. 25.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종래의 진보적인 창작방법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한계단 발전시킨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며, "선행한 창작방법 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인 창작방법"[63]이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을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게 더욱 원만히 형상할 수 있는 창작방법을 요구하였는 바, 여기에 부응하여 나온 새로운 창작방법이 바로 주체사실주의라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은 밝히기를,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한다는 면에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같은 계열에 속하며, 두 방법 모두 현실을 사실주의적 원칙에서 반영하고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첫째,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관적 기초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정에 오른 역사적 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타파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으로서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 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 데 복무하는 것을 역사적 과제로 제기한 창작방법이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진보적인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 또한 이에 대해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63) 장형준,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조선문학」 (1993. 5), p. 19.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것을 역사적 과제로 제기한 창작방법이며,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최고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 「주체문학론」은 이와 같이 시대적 요구와 세계관적 기초가 다른 두 창작방법 가운데 주체사실주의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문학예술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제기하고 이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방법을 요구하며 창작방법은 시대의 산물인 것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바,[64]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라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은 세계를 변화 발전하는 물질적 존재로서 과학적으로 인식 가능케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자주적·창조적·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과 사람에 의하여 지배, 개조되는 세계의 면모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는 제한성을 드러냈으나,[65] 주체사실주의는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실주의는 세계에서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함으로 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제한성을 극복하였으며, 이와 같이 주체사실주의가 세계관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근본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근본적인

64) 위의 글.
65) 위의 글, p. 21.

차이는 사람을 어떤 견지에서 보고 그리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주체문학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제약되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지만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리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체사실주의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 역사를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66]이라는 점에서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창작방법이라고 한다.

요컨대 위에서와 같이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공통성을 계급적 이념과 사실주의적 형상방법에서 찾고 있으며, 차이점을 시대적 요구와 철학적 기초, 사람에 대한 관점 등에 근거해서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통성과 차이점을 토대로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의 관계를 '독창성을 기본으로 한 계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 주체사실주의의 발생발전은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주체사실주의를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단순한 계승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체사실주의는 지난날의 모든 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과 체모를 갖춘 새로운 사실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의 독창성과 혁신적 의의가 있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관계에서는 독창성을 기본으로 보면서 계승성을 결부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67]

---

66)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역사 발전을 그린다는 것은 인민대중을 사회역사 발전의 주체로, 사회역사적 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보고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02.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창작방법이며 문예창작에서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따라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는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명제는 문예 창작의 기본 지침에 그대로 반영되며, 특히 인간과 생활의 전형화에서 강조되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그리는 창작방법이라는 것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인간과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주의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 요구이며,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생활을 보고 그림으로써 전형화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체문학론」은 주체사실주의가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역사를 보고 자주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 주체사실주의의 본질적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체사실주의가 공식화되기 이전까지 북한이 문예창작의 기본원리로서 표방해 왔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을 의미한다.[68] 또한 주체사실주의 역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이다. 이에 대해 「주체문학론」에서는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 이 정식화는 사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정식화”라고 밝히고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는 문예창작의 원칙에 있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에서 말

67) 위의 책, p. 96.
68) 「정치사전」, p. 581.

하는 '민족적 형식'은 일치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민족적 형식이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화예술형식"[69]을 뜻하며, 주체사실주의에서도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70]를 뜻한다. 그러나 두 방법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혁명적인 내용, 다시말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것"[71]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체사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내용, 인간의 제일생명은 정치적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내용이 포괄"[72]되어 있고, 특히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실주의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역사는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임을 들어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에는 '새 것과 낡은 것의 투쟁'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진 내용들을 자주성에 관한 문제들로 귀결시키는 한편, 이로써

---

69)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7.
70)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14.
71)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27.
72)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08.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주체사실주의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월한 창작방법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체사실주의가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주체문학론」은 문학예술이 작품이 담아야 할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자주적인 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실현되는 바, 주체사실주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체사실주의가 창조한 자주적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 견결한 혁명가"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 창작에 있어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주체사실주의는 문예창작을 통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구현을 위해 그 실천적 방도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 원리에 따른 형상화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발양을 강조하고 있다.

3. 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가. 수령형상 창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합리화의 이론적 근거인 북한의 '수령관'에 따르면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적 복무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영도자이며,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 당의 최고영도자이다.[73] 또한 '사회정치

73) 「정치사전」, p. 324.

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수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수뇌이며,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로서 인민대중에게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이므로 그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74] 「주체문학론」에서는 이와 같은 수령의 존재를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최고전형"[75]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북한 문예창작에 있어 수령형상 창조란 위에서와 같은 수령의 존재를 수령형상 작품에 고유한 생리[76]에 따라 잘 형상하는 것을 말하며, 수령형상 창조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기본수칙이 있다. 첫째, 수령형상 창조에서는 걸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전략가, 영도의 예술가, 통일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을 형상해야 하며, 인간적 풍모의 위대성 형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 수령의 형상은 반드시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당과 대중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민 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풍모를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77] 셋째, 수령의 위대성은 체계적·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

7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참조.
75)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26.
76)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를 말하며, 작가의 주관적 의도는 작품의 생리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위의 책, p. 140.
77) 위의 책, pp. 134~135.

서 형식의 장편소설 창작에 주력해야만 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수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뚜렷이 강조해야 한다고 한다.[78] 다섯째,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수령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반영해야 하며, 작품의 양상은 밝고 숭엄해야 된다고 한다. 또한 이상의 다섯 가지 수칙 외에 수령형상 창조에서는 수령의 후계자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체문학론」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79] 먼저 노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잘 형상해야 하는 바, 이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 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령의 후계자 형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업적을 전면적으로 형상해야 하며, 특히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형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계자는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뛰어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이며,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후계자의 형상을 창조할 때에는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문예창작에서 수령형상 창조의 목적은 다름아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다. 수령형상 창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의

78)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81.
79)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38~139.

위대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충심으로 존경하고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문예부문에서의 수령형상 창조를 강조하기 시작한 처음에[80] 김정일이 행한 한 담화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 우리가 오늘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말하면서 수령형상 창조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수령형상 창조문제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기 때문입니다.[81]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고화 단계에 들어선 1990년대 들어 수령형상 창조에서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수령의 후계자형상 창조를 새롭게 공식화하고, 김일성 사후에는 수령의 후계자형상 창조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길"[82]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음도 수령형상 창조의 정치적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및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수령형상 창조를 통한 수령에 대

---

80) 1966년, 김정일은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문예창작에서의 수령형상 창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81) 김정일,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1967년 6월20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6), p. 141에서 재인용.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란, 전당과 전체인민을 수령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82)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조선문학」 (1997. 1), p. 9.

한 충실성 강화라는 문학예술의 선전선동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령형상 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집단을 설립하였는 바, 문학부문에서의 '4.15문학창작단'과 영화부문에서의 '백두산창작단'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형상 창조 전문 창작집단 설립은 수령형상 창조사업을 당의 유일적 지도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졌다.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수령형상 창조는 이를 통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시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83] 따라서 수령형상 창조는 북한의 작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며[84] 또한 첫째가는 과업이기도 하다.

나. 당의 위대성 형상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 력량"[85]이다. 또한 북한에서 노동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의 모체(母體)이기도 하다. 당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늘 보살펴주는"[86] '어머니 품'이며,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활동의 원칙"[87]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의 의의와 역

83) 강능수,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근본 특징에 대하여," 「근로자」 (1990. 1), pp. 74~76.
84) 「조선문학」 (1997. 4), p. 6.
85)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당이다," 「조선중앙년감」 (1983), p. 170.
86)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3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536.
87)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

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88]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당의 위대성 형상'은 위에서와 같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대"[89]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조선노동당의 의의와 업적을 형상하는 것을 말하며,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도 몇 가지 기본수칙이 있다.[90] 첫째,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이고,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투적 당이라는 것을 잘 형상하여 세상에서 조선노동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 놓은 당의 업적'에 대해 생동하고 깊이있게 형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

다," 「조선중앙년감」 (1991), p. 81.

8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 167.

89) 허정숙,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대중적 당," 「근로자」 (1985. 10), p. 36.

90)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52~160 참조.

는 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도 당의 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잘 형상하며, 당의 형상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으로서 그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체문학론」은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전형을 통한 당의 위대성 형상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며, 특히 당일군의 전형 형상에 있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당일군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 하여 형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김일성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며,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당이다. 이는 곧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사당(私黨)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91]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렇게 볼 때, 문예창작에서의 당의 위대성 형상은 궁극적으로 수령의 위대성 형상을 의도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위에서 서술한 당의 위대성 형상의 기본수칙들에서도 그러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

북한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된

91)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당이다," p. 171.

다.[92]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며 당과 수령에게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되며, 이러한 기준에서 평가할 때 가장 값높고 빛나는 가치를 갖게 되는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있는 사람이 바로 주체형의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란 자주적인 인간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장 원만히 체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를 일컫는 말이다.[93] 또한 「주체의 인간학」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운 성격, 고상한 풍모를 지닌 인간"인 "주체형의 인간의 아름다운 성격에서 핵을 이루며 그의 고상한 풍모를 규정하는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94] 「주체문학론」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진가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서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 등 4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신념화·양심화·도덕화·생활화된 충실성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 랑만과 락관주의 등의 품성을 지닌 사람"[95]을 일컫는 말이며,

92) 「철학사전」, p. 299.
93)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13.
94)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53~164 참조.
95) 류만,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 (1991. 1), p. 39.

북한 문예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품성을 잘 형상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 있어서도 기본수칙이 있다.[96] 첫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형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해 나가는 과정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그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형 공산주의자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해야 된다고 한다. 둘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형상해야 하며,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니고 있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해야 하며, 특히 대중적 영웅주의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며 조직의 지도와 집단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해야 된다고 한다. 넷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닌 숭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정치성과 결합하여 형상해야 하는 바, 주체의 인간학에서는 주인공의 인간성을 타고난 천성으로 그릴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성품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섯째,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서는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새 시대 인간의 새로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옳게 그려야 하며, 특히 수령, 당, 대중 앞에 지닌 사회적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헌신성을 잘 형상해야 된다고 한다.

「주체문학론」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 있어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정신도덕적 풍모 형상을 요구하고 있음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요구는 1980년대 말 이래 전개된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96)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65~176 참조.

체제수호 및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북한 문학예술계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사상정신적 풍모를 90년대 인간의 성격적 특질로 규정[97]하고, 문학예술이 창조해야 할 90년대의 성격은 곧 90년대 시대 정신의 체현자임을 명백히 하였다.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에 있어 90년대 성격이란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체현자"라는 것이며,[98] 보다 구체적으로 90년대 성격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 둘째,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 확고한 민족제일주의정신, 셋째,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비극사를 영원히 끝장내고 조국통일 위업을 90년대에 기어이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과 불굴의 투쟁정신 등이 그것이다.[99]

북한 문헌에 따르면,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운다

---

97) 김정웅,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조선문학」 (1991. 3), p. 42.

98) 김정일은 시대정신의 체현자를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새형의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다. 김정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 50.

99) 최언경, "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년대성격 창조문제를 두고," 「조선문학」 (1991. 5), pp. 61~66.

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궁극적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기본품성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이른바 90년대 성격 규정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4. 문예창작의 기본원칙과 실천적 방도

가. 기본원칙

(1) 종자론

북한 문예정책의 핵심은 주체의 문예이론과 종자론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이 김일성에 의해 주창되었다고 하는 미학의 원리라고 한다면, 종자론은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강령이다.[100]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의 작품 창작에 있어 전 과정에 걸쳐 전일적으로 작용하는 근본교리인 종자론은 1970년대 들어서 북한 문예계에 도입된 문예창작 이론체계로서 1973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저술, 「영화예술론」에서 정식화되었으며 1992년 발간된 「주체문학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져 있다.[101]

---

100)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북한의 문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73.

101) 종자론과 관련해 「주체문학론」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은 사건문학보다 성격문학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학에서 인간 형상 창조는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자의 요구를 성격을 그리는데 집중시켜야 하는 바, 종자는 원래 인물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지므로 인물의 성격을 살려내지 못하면 종자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190~192.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학론」을 통해 본 종자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 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뜻한다. 종자란 현실과 생활에서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이며,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체현하고 있는 사상적 알맹이이기 때문에 작품의 핵으로 된다고 한다. 둘째, 종자는 작품의 사상, 주제 및 소재와 구별된다. 작품의 사상은 종자로부터 나오며 종자에 의해 규정되고, 주제 및 소재도 종자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다. 종자론에서 사상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작품의 사상은 곧 작가가 종자의 구현 과정을 통하여 밝히려는 자신의 주장, 생활에 대한 평가, 인물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종자는 생활에 체현되어 있는 사상적인 것을 뜻하며,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대상 속에 생동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생활에 체현되어 있는 사상적인 것, 종자는 사람의 성격 속에 있고 사건 속에 있으며 현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서 종자가 체현되어 있는 생활 속에서 제기된 것이며,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는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주제가 종자에 의해 제약된다고 한다.[102] 소재가 종자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소재는 작품 형상의 바탕인 생활자료, 사실자료이며 종자는 형상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자론은

102) 「주체문학론」은 주제와 종자의 구별을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작품에서 주제는 '나라 잃은 민족의 운명문제, 압제자에게 수난당하는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이며 종자는 '자위단에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위의 책, p. 182.

주제 및 소재와 종자는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자는 사상과 주제 및 소재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한다. 그리고 종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 주제, 소재의 유기적 연결 및 통일은 곧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 요인이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고,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103]

종자론에서는 종자 선택이 "작품 창작의 출발점이며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104]라고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 형상이 생명으로 된다면 인간 형상에 활력을 부어주고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생명의 핵은 종자이며, 이러한 종자의 발견은 작품 창작의 선결 조건이며 기초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자론에서는 문예 창작에 있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종자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문예 창작에서 올바른 종자 선택이란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종자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풀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제를 당 정책에 의거해서 풀어야 하며, 당 정책에 맞게 창작한 작품만이 사람들의 혁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자론은 당 정책적 요구에 맞고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종자는 현실과 생활 속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현실과 생활이란 "수령, 당, 대중이 통일단결되어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힘찬 진군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105]

---

103) 「철학사전」, p. 650.
104)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p. 411.

그 자체를 의미한다.

종자는 작가를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이며 예술적 환상과 창조적 열정의 원천이라고 한다.[106]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 북한의 작가, 예술가들에게 있어 예술적 환상과 창조적 열정의 원천인 종자는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에 체현되어 있는 사상적인 것, 곧 종자의 실체는 당과 수령의 의도 내지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종자론에 의거한 북한의 문예 작품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도, 그리고 당의 문예정책 구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문헌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오늘 우리 문학에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 당정책이 곧 작품의 종자로, 내용으로 되고 있으며 장군님의 의도와 당의 요구가 곧 작품의 문제성으로 되고 령도자가 키우고 내세워준 인민이 바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전형으로 되고 있다.[107]
>
> 문학예술작품창작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 전 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108]

(2) 속도전

'속도전'이란 1974년 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원칙이다. 속도전은 "집단의 전

105) 위의 글.
106) 『철학사전』, p. 650.
107) 최길상,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 p. 8.
108)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p. 103.

성원들이 혁명적 열정을 높이고 일을 짜고들어 자기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전격전·섬멸전으로 전개, 속도를 높이는 가장 우월한 혁명적 전투원칙"[109]이라고 개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속도전 개념이 북한 문예부문에 도입된 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창작사업의 특성으로부터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김정일에 의해서다. 그에 의하면 속도전은 모든 작품창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인 요구이다. 또한 그는 문예부문에서 속도전 방침은 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 제작을 비롯해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등 5대혁명가극 창조에서 구현되었으며, "특히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7부까지 완성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창작사업에서 속도전을 벌리며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구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낳은 빛나는 열매"[110]라고 평가한다.

문예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자각과 창작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당 사상사업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해 나가는 혁명적인 창작원칙이며 창작전투의 기본형식"[111]을 뜻한다. 속도전의 요체는 단기간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속도전이란 단지 일을 빨리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에 맞추어 단기간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

109) 「로동신문」, 1974.2.18.
110)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p. 68.
111) 「철학사전」, p. 654.

해 내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속도전 원칙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북한 문예창작에서는 '집체창작'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창작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112]

(3) 갈등해결

북한의 문예작품 창작에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대립과 투쟁으로 갈등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은 극적인 것을 형상하는데서 기본이다.[113] 또한 북한 문예작품에서 갈등은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써 해결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모순이 적대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은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에서 긍정과 부정의 충돌이 결렬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도 안된다는 것이다.[114]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와 사상적 충돌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이해관계의 근본적 대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들 내부의 문제이므로, 사회주의사회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예술적 갈등은 극단적

112) 단기간내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조하려면 작가, 예술인들이 집체적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바, 문예작품 창작에서 '집체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p. 104.

113)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리론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 9), p. 34.

114) 김일성,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447~448.

으로 조성되거나 결렬되는 것으로 그려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이기 때문에 갈등은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5]

그러나 또 한편 김정일의 담화 "연극예술에 대하여"에서는 작품구성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성격들의 직접적인 대립, 충돌과 같은 갈등구조를 지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에서 인물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모든 경우에 그들의 관계를 직접적인 성격 충돌로 그리려고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부정인물을 설정한 갈등구조 없이도 작품의 극적인 것, 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을 취급한 작품, 특히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와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이 없이도 작가가 현실을 긍정하는 높은 열정을 가지고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 보여주면 극성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긍정을 내세우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된다는 주장이다.[116] 이러한 주장은 '무갈등론'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연극예술에 대하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한 때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무갈등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한편, 사회주의 현실 주제 작품에서의 갈등문제 해결에 있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117] 하나는 종자의 요구와 소재의 특성에 관계없이 무턱대고 갈등을 강하게 설정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긍정적인 것이 기본을 이루는 북한

115) 김일성,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54~55.
116)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pp. 417~418.
117) 위의 글, p. 418.

사회주의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부정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내놓는 경우에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경향이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주체문학론」에서는 문예작품 창작에서 예술성을 무시하고 사상성만 강조하는 것은 좌경적 편향이고, 사상성을 거세하고 예술성만 내세우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문예창작에서 이와 같은 좌·우경적 편향은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 역할을 거세하는 반동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한다.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예작품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은 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수적인 요구[118]이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켜야만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상성은 문학예술의 중요한 속성이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되어 있다. 사상성은 예술 작품의 가치 규정에 있어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이며 문학예술 작품의 본질적 내용을 표현하는 사상적 경향성을 뜻한다.[119] 또한 사상성은 작가, 예술인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문예작품의 사상성 보장은 오직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창작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예술성은 문학예술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예술에 고유한 생활 반영의 특성 또는 예술작품의 사회적 의의를 규정하는 질의 높이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문학예술의 형상성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120] 사상성과

118) 김정일, 「주체문학론」, p. 36.
119) 「정치사전」, p. 406.

예술성의 결합에서 핵은 사상성의 최고표현인 정치성이다. 문학예술은 정치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문예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데서는 정치성을 뚜렷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사상성의 구현이라는 것과 종자 선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사상성 구현이 목적지향적인 것이라면 예술성은 수단지향적인 것이다. 문학예술에서 예술성 구현은 현실과 생활에서 밝혀낸 사상성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에서 예술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성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문학예술로 하여금 사상교양적 기능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며 혁명위업에 보다 훌륭히 이바지하게 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121]

「주체문학론」에서는 문예작품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의 통일,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 정치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통일, 철학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의 통일, 사상과 정서의 통일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작품창작은 곧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형식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을 담는 주체사실주의 창작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영웅적인 생활 내용과 아름다운 민족적 형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작품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감화력 있고 교양적 가치가 큰 작품이라는 것이며, 혁명적 예술작품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라고 한다. 혁명적 예술작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

120) 위의 책.
121)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33.

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물젖게 한다는 것이다.[122]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란 바꾸어 말하면 사상성과 인민성의 결합, 또는 정치성과 대중성, 통속성의 결합을 뜻한다.[123]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일성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해야 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한 예술,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124] 순수예술을 주장하는 것은 예술지상주의, 수정주의를 범하는 것이며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을 뜻한다.

(5) 당의 영도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는 당의 영도이다.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란 작가, 예술인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125] 「주체문학론」에서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을 건

122) 김일성,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김일성저작집」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67.
123) 대중성, 통속성은 문예작품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1.
124) 김일성,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김일성저작집」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0~11
125) 김일성,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54.

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 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혁명적 문예창작에 있어서 당의 영도를 생명선으로 견지하며, 당이 제시하는 문예창작과 건설의 방향 및 방도를 따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체문학론」은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적 공세를 벌리고있고 일부 나라들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126]라고 밝힘으로써, 1990년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문학예술계의 동요 및 외부사조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문예부문에 대한 당적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 당적 통제는 당의 유일적 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의 유일적 지도란 곧 수령의 영도를 뜻한다. 문예창작을 비롯한 문예 전반에 대한 당의 방침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유일적 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영도라는 것이다. 문예부문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는 문학예술의 혁명적 원칙성과 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문예창작 과정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과정으로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이며 결정적 담보가 당과 수령의 영도라고 한다. 이는 곧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한다는 것이며, 작가, 예술인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새형의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127] 따라서 북한 문예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126) 김정일, 「주체문학론」, p. 280.
127) 「철학사전」, pp. 653~654.

것은 작가를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가로 준비시키고 그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주체문학론」에서는 작가를 일컬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 문예노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라고 하며,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지닌 작가들이 본분을 다할 때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 문예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이 이른바 주체형의 혁명적 문예전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제는 '당성' 단련이다.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것은 당과 수령이 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한다.[128] 또한 작가, 예술인들의 당성 단련을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 강화와 작가, 예술가들의 조직 생활 적극 참가를 통한 사상 투쟁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는 문예부문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당의 지도 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세워진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이며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집체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라고 한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란 "당의 유일적 지도 밑에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하여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지도체계"를 뜻하며, 주체적인 창조체계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전과정을 우리 식으로 조직화, 규범화한 창조체계"를 뜻한다.[129]

---

128)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p. 109.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는 문예창작에서 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선택할 때 철저히 당의 정책에 의거하여 사상 이론적 문제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해 편향을 극복하고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1971년에 행한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당의 방침에 따른 창작 원칙으로 주체적 문예사상에 의거할 것, 창작에서의 요행수를 바라지 말 것, 소재를 바로 선택할 것, 반복적이지 않고 독창적일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나. 실천적 방도

(1)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여타 사회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이며 당적 방침으로 되어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진 사회주의하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군중 교양의 위력한 방도로 되며,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도덕관념이 강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에 완전히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교양 방법이라는 것이다.[130]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대중들 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을 제 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79년 10월 「숨은

129) 위의 글, p. 101.
130) 「정치사전」, p. 119.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을 발기하고 전 사회적·군중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 강화해 오고 있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북한 문예창작의 실천적 방도로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문예정책에 의거하여 사회내의 아름다운 긍정적 사실들과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형상한 좋은 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131].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북한 문예부문에서도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대중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다량 창작, 발표되고 있다. 북한 문학예술 작품에서 숨은 영웅과 숨은 공로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형상된다. 그들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형상되며, 특히 그들의 집단주의적 생명관과 혁명적 인생관, 그리고 대중적 영웅주의가 중점적으로 형상된다. 이러한 창작 경향은 북한이 숨은 영웅과 숨은 공로자를 소재로 한 문예작품을 창작, 보급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와 전 주민의 영웅화를 의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동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사회정치적 생명체 원리에 맞게 형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집단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또한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사

131) 김일성, "문화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9~40.

회정치적 생명체이므로 그 사이에서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의거하여 수령과 각 개인이 혈연적인 관계를 맺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혈연적 관계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집단은 곧 하나의 가족공동체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그리고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친형제들이다. 또한 수령으로부터 받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받는 유한적인 육체적 생명에 절대 우선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가족보다도 거대한 하나의 가족공동체인 국가에 헌신해야 마땅하다.[132]

위와 같은 논지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원리는 북한의 주체 문예작품 창작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북한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 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바,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떠나서는 북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본질을 밝혀낼 수도 없으므로 문학예술이 북한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형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원리에 맞게 문예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수칙이 있다. 첫째,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통일체라는 입장에서 수령을 형상하고 당을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형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에서 인간과 생활을 보고 형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작품에 수령과 당을 직접 형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과 수령이 제기

13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참조.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주인공의 투쟁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과 당의 영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요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기본품성이고 성격의 핵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 있다고 한다.[133]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영원한 형상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영원한 형상원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구현

1986년 김정일의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말한다.[134] 또한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발양에 있어 중요한 요건들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 체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으로의 무장,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강화, 그리고 혁명전통 계승 및 민족적전통의 올바른 계승 등을 강조한다.

1980년대 말 이래 김정일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에서[135] 공식화된

133) 최인경,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 창조에 대한 완벽한 이론적 해명," 『문학신문』, 1993. 5. 7.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p. 41에서 재인용.

134)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통일원 정보분석실, 『김정일 주요논문집』, pp. 174~176.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북한체제 수호와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개발된 이념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공식화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김정일의 저술 「주체문학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세우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136]

위의 글에서와 같이 북한이 1980년대 말 이래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교양을 강력하게 제기해 온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체제동요 및 후계체제 약화를 우려했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 발양의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토록 하는 것, 둘째, 자체의 힘에 의한 사회주의건설을 통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발양토록 하는 것, 셋째,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달성토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앞의 두 가지 목적은 궁극적으로 수령, 당, 주체사상,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함양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목적은 주목할

---

13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89년 12월 28일 연설), 통일원 정보분석실, 앞의 책;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92년 2월 4일 담화),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36)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7.

만하다. 1992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 고려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민족이 40여년 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았기 때문에 민족성이 이질화되였다고 하지만 피줄관계로 보나 미풍량속으로 보나 우리 인민의 민족성은 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민족의 넋을 지니고있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고려민족제일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풍량속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빛나는 전통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될때 깊이 심어질수 있습니다. 137)

위의 글에서 시사하는 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수령과 당, 사회주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뜻하며, 특히 이를 통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전통이란 곧 항일혁명역사, 항일혁명문화, 항일혁명전통을 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남북한의 문화예술교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않을

137)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p. 14~15.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문학론」에서는 문예작품 창작에서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 적극 구현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그 사상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138]

위의 글에서와 같이 문예작품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구현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구현을 통해 문예작품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성과적으로 해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 있는 조선의 넋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일관되어 있는 기본사상이라는 것이다.[139]

(4) 현실 체험을 통한 창작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 목적은 인민 대중의 수요 만족을 통한 혁명

138) 김정일, 「주체문학론」, p. 17.
139)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70.

적 교양에 있다. 소설, 시, 음악, 영화 그 밖에 다른 모든 예술은 인민 대중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입장이다.[140] 따라서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작품 평가의 기본 척도가 된다. 인민 대중이 좋다고 평가하는 작품이라야 잘된 작품이며 인민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은 잘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작가, 예술인들이 문예작품 창작에서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 인민 대중 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은 이른바 '현실 체험'이다. 종자론에 따르면 당 정책적 요구에 맞고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종자는 현실과 생활 속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인들은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노동자, 농민, 군인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들끓는 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인민 대중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것[141]이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 방침이다.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현실 체험이 창작의 주요 방도로서 강조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현실 체험을 통한 창작을 함으로써 문예작품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현실 체험을 통한 현실 반영이란, "수령, 당, 대중이 통일 단결되어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힘찬 진군 운동을 벌리고 있는"[142] 현실

140) 「김일성저작선집」2권, p. 578.
141) 김일성, "현시기 문학예술인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42.

과 생활을 체험하고 그 현실과 생활을 작품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북한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과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43]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바, 실제에 있어 현실 체험을 통한 현실 반영이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투쟁 체험을 문예작품에 형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문예작품에서의 당 정책 구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현실 체험을 통한 작품창작은 궁극적으로 문예작품의 사상교양적 기능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창작에서 현실 체험이 창작의 주요 방도로서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 체험을 통한 창작을 함으로써 문예작품에서 인민성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문예작품에서의 인민성 구현이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작품창작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창작가들은 인민의 사상 감정과 생활 정형에 맞게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인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는 통속적인 작품을 창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현실 체험과 인민 생활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2)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p. 411.
143) 김정일,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p. 103 참조.

Ⅳ. 북한 대중문화의 실제

이 글의 앞 부분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의 문예창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내지 취지에 입각하여 북한 대중문화 실태에 관한 실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북한의 음악과 영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대상 선정은 북한의 음악은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된 바 있으며, 영화는 앞으로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환경이 열악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난해하지 않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는 음악과 영화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악과 영화를 실제적 측면에서의 북한 대중문화 실태 분석 대상으로 한다.

1. 음악

북한의 음악은 '주체음악'이다. 음악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와 이론을 집대성한 「음악예술론」에 따르면, 주체음악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 된 새 시대, 주체시대에 상응한 음악이며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하는 음악이다. 주체음악은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형의 음악이며, 이로써 선행한 모든 음악예술과 뚜렷이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144] 또한 주체음악은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에

144) 김정일, 「음악예술론」, pp. 3~4.

의거하여 혁명적 내용을 인민적 형식에 담는 음악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에서 핵은 수령에 대한 것, 수령·당·대중의 혈연적 연계에 관한 것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그것을 핵으로 하는 당과 근로 인민대중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음악의 혁명성을 규정하는 기본 내용이라는 것이다.[145] 인민적인 형식이란 인민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그들의 감정 정서에 맞고 그들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언어와 민족적 선율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음악에서 인민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상한 예술성을 전제로 한 대중성, 통속성이라고 한다.[146] 주체음악은 그 형식에 있어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면서도 예술적 수준이 가장 높은 음악이라는 주장이다.

주체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주체음악 발전의 기본방침과 방향

주체음악 발전의 기본방침과 방향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창작에서의 주체성 견지 및 주체 확립이다.

「음악예술론」에서는 음악예술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근본원칙으로서 주체적 입장의 견지를 강조하고 있다. 음악이 인민의 사상감정과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되자면 음악을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음악창작에서의 주체성 견지

145) 위의 글, p. 8.

146) 「음악예술론」에 따르면 주체음악의 대중성, 통속성은 '낡은 사회'의 대중음악이나 통속음악과는 다르다. 주체음악 창작에서 대중성, 통속성 보장이란 인민대중의 지향과 감정에 맞으며 인민대중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내지 주체 확립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미 토착화된 양악과 양악기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악과 양악기를 조선음악에 철저히 복종시킴으로써 음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악과 양악기를 가지고 인민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여 민족적 정서를 잘 살려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악기로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 조선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조선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서양노래를 연주한다면 서양악기는 군중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서양악기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조선음악 발전에 옳게 이용해야 한다"[147]는 주장이다.

둘째,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민족음악을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민족음악을 인민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재창조, 재형상함을 말한다. 북한에서 민족음악 발전은 민요 발굴 및 재형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도민요를 기본으로 한다. 서도민요는 선율이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도 쉽기 때문에 민족음악은 서도민요를 표준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48] 북한에서 판소리는 보존은 하되 장려할 필요가 없는 민족음악으로 되어 있다. 판소리는 너무 옛날 것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으며, 남도창은 양반들이 갓쓰고 당나귀를 타고다니던 시절에 술이나 마시면서 앉아서 흥얼거리던 것으로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149] 따라서 민족적 노래 형식이

147)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34.
148) 김정일, 「음악예술론」, p. 25.
149) 김일성,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p. 447.

긴 하지만 판소리나 남도민요 같은 것은 그대로 살리지 말고 인민들이 부르기 헐하고 알아듣기 쉽게,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 재형상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음악예술론」에서는 음악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구현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음악예술부문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한다는것은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음악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고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음악, 조선사람의 민족적특성과 풍습, 생활감정과 정서를 담은 조선음악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150]

또한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청년들이 날라리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며,[151] 민족음악을 경음악식으로 형상하여 보급·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민족음악을 경음악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전자악기와 양악기를 이용하여 민족음악 작품을 경쾌하고 흥취가 나게 형상함으로써 민족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이 나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음악 발전에 있어서는 편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곡에 있어서는 전자악기와 양악기를 적극 활용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민요를 편곡하여 연주하는 왕재산경음악단을 일컬어 '민족경음악단'이라고도 한다.[152]

---

150) 김정일, 「음악예술론」, p. 195.
151) 김정일, "민족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76.

셋째, 퇴폐적인 부르죠아 음악 배격이다.

부르죠아 계급의 반동적·퇴폐적 음악예술은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절대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상과 비애에 잠겨 죽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사람의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곡조들은 결정적으로 배격해야"[153] 하는 바, <쟈즈>와 같은 그러한 곡들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혁명의식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쟈즈>와 같은 퇴폐적 부르죠아 문화'를 '혁명적인민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무기'로 규정하고 퇴폐적 부르죠아 문화 침습 방지를 위해 민족음악 보급사업 및 민족음악작품 보존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인민대중을 위한 음악 창작이다.

인민대중을 위한 음악 창작은 인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좋아하는 음악 창작을 말한다. 음악은 "인민대중을 위한 것인 것만큼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라야 훌륭한 작품이고 예술수준이 높은 작품"[154]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을 위한 노래는 인민들이 즐겨부를 수 있도록 쉬운 곡조로 만들며 인민들이 사랑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조선식 노래로 창작해야 한다. 또한 노래는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옳게 반영해야 하며, 인민들이 누구나 따라부를 수 있는 명곡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가사보다도 곡 중심의 노래를 창작해야 한다. 북한은 음악예술부문에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국보적인 노래를 창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국보적인 노래란 혁명적 수령관과 수령

152) 김정일, "민족음악 발전을 위해 민족음악보급사업 강화," 「김정일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79.
153) 김일성,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p. 451.
154) 김일성,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92~293.

에 대한 충실성을 작품의 내용으로 하고 당 정책을 반영한 노래로서 인민들의 사상과 생활감정에 맞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창작된 노래, 수령과 인민이 좋아하는 노래를 말한다.[155]

다섯째, 통속적인 혁명가요 창작이다.

이는 음악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예술로 되기 위하여서는 작곡가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이 요구하며 인민대중이 즐겨부를 수 있는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56] 통속적 혁명가요란 부르기 쉬운 곡조에 혁명적인 가사를 붙인 노래를 뜻하며, 주요 내용은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반대, 지주와 자본가 반대, 사회주의건설 매진,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조국통일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등이다. 통속적 혁명가요의 창작·보급은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하는 북한 주민들을 고무추동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남한 주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157]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혁명가요 외에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교양하기 위한 노래,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서정적 노래 등도 비중 높게 창작되고 있다.

여섯째, 음악의 대중화이다.

주체적 음악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음악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악예술을 대중화한다는 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음악예술 창조 활동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대중적인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음악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8] 음악의 대

---

155) 김정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8.
156) 김일성,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p. 294.
157) 김일성,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90.

중화는 현실 생활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며, 대중이 음악예술의 창조자라는 기본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음악을 창작, 발전시키려면 생활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음악예술 활동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인민대중의 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함므로써 사람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바, 광범한 군중을 음악예술 창작사업에 적극 인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실천적 방도의 하나는 근로자 중심의 음악예술소조의 조직이다. 근로자들의 예술활동은 조직화·집단화되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예술소조는 대중적 음악예술 활동을 위한 기본 조직형식이며 거점이라고 한다.

나. 1990년대 북한음악의 특징

1990년대 북한음악의 특징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수령형상 음악'의 창작·보급이다.

수령형상 창조는 시대적 변화에 관계없이 정해진 북한 문예창작의 첫 번째 과제이다. 이전과 다름없이 1990년대를 통해서도 김일성의 위대성을 형상한 노래와 그의 업적과 은덕을 찬양하며 그를 흠모하는 노래들이 많이 창작·보급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후에도 그의 영생을 기리는 내용의 노래들과 유훈관철의 의지를 담은 노래, 탄생(태양절)을 기념하는 노래, 그리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다짐하는 노래들이 창작·보급되었다. 1990년대의 수령형상 음악 창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새로운 창작원칙으로서 음악작품에서의 '붉은기 정

158) 김정일, 「음악예술론」, p. 41.

신' 구현이다. 북한은 수령형상 음악작품에서 '붉은기 정신'이 구현되어야만 '전인민적 송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붉은기 정신이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혁명가요의 정신을 의미한다.[159] 이와 관련해 볼 때, 1990년대 들어 북한이 항일혁명투쟁기에 김일성과 그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이 창작했다는 혁명가요들을 재형상하여 보급할 것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은,[160] 1990년대 들어 강화된 '붉은기 정신'이 반영된 수령형상 음악작품 보급의 또 다른 시도라 하겠다.

둘째, 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가요의 창작·보급이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과정에서 꾸준히 창작·보급되어 온 김정일 찬양과 우상화를 위한 가요는 1992년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이후 크게 증가하여 김일성 찬양 및 우상화 가요보다 더 많은 곡들이 창작·보급되었다. 북한 문예창작에 있어 수령의 후계자 형상 창조는 수령 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하는 바, 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가요의 내용은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업적, 특히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풍모,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등으로 되어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과 김정일 결사옹위를 다짐하는 가요들이 대부분이다.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기간에 발표된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음악에서 수령 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여 수령의 후계자 형상을 창조한 대표적 작품이며 김정일 시대의

15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 문화교류 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 68.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주체사상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과 김정일 중심으로 인민대중이 단결할 것을 선동하는 데 있어 붉은기사상을 내세웠다.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73~74.

160)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67.

공식화를 예고한 작품이기도 하다. 북한은 2001년 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이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노래가 21세기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김정일이 1971년에 창작한 가요이며, 창작동기 내지 목적은 김일성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서라고 알려져 있다.[161] 이와 관련해 볼 때 공동사설에서 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21세기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은 이 가요 보급을 통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이다.

1990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음악예술부문 창작가들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노래를 창작하는 데만 관심을 돌리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생활적인 노래를 창작하는 데는 관심을 잘 돌리지 않고 있음"[162]을 지적하고 근로자들의 정서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을 많이 창작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지적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노래, 어린이에 대한 노래와 자장가, 결혼·환갑 축하 노래, 청춘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생활가요 창작·보급의 의의와 중요성을 퇴폐가요의 침습 방지에 두고 있다. "생활적인 노래가 별로 없는 것은 음악예술에서 하나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런 틈을 그대로 둬두면 퇴폐적인 노래

161) 「연합뉴스」, 2001.1.3.

162)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63.

가 침습"할 수 있으며, 퇴폐적인 노래는 주로 생활가요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퇴폐적인 노래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도 생활적인 노래를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163] 북한의 생활가요는 비교적 사상성이 적은 가사와 빠른 템포, 경쾌한 곡조가 특징이며 북한사회의 '밝고 건전한 시대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이다.

「음악예술론」에 따르면, 북한 음악에서의 주체 확립은 외국의 것에 대한 무시와 배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음악에서도 좋은 것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985년 창단된 보천보전자악단은 이와 같은 논거에서 '연주 수단과 형식의 세계적 발전추세'를 고려해 만들어진 악단이다. 북한은 보천보전자악단의 음악을 "우리 식의 요구를 구현하여 전자악기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취미와 정서에 맞는 조선식음악을 훌륭히 창조한 빛나는 모범"[164]이며, '주체음악과 인류음악예술의 최첨단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창조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창단 목적은 민족적이고 현대적인 '우리 식'의 새로운 가요 창작이다. 따라서 보천보전자악단은 '밝고 경쾌하고 낙천적인 음악'과 '생활적인 음악'을 창작·보급하는 한편 혁명가요, 민요 등을 '인민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 재형상하여 보급한다. 보천보전자악단은 가요와 민요에 전자악기의 음향과 현대적인 서구의 팝 음악적인 요소를 도입시켜 시대성이 강한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노래들을 창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북한식의 새로운 가요 창작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65] 특히 보천보전자악단이 녹음한

163)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46.
164) 김정일, 「음악예술론」, p. 30.

외국음악 카세트테이프와 청춘남녀의 사랑과 생활을 담은 노래들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 주제의 다양화이다.

1990년대 북한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주제의 다양화이다. 주제의 다양화는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증가한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노래,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때의 축하노래, 청춘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등 다양한 주제의 가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주제의 가요들 가운데 특히 청춘 남녀의 사랑과 생활을 담은 가요들은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애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휘파람'은 크게 인기를 모은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구애(求愛)를 내용으로 한 서구풍의 경쾌한 리듬의 대중가요로서 북한에서는 "청춘 남녀들의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을 사회주의 건설의 약동하는 현실 속에서 꽃피워 가는 생활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166]으로 호평된 노래이다. 북한가요에서 주제의 다양화는 <평양은 우리의 고향>, <평양은 나의 심장>, <평양은 낙원의 절경일세>, <평양은 사랑의 요람> 등 평양찬가와, <농장 벌에 우리 희망 넘치네>, <농장 벌에 종다리 노래하네>, <농장 벌의 기계화 부부>,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 농촌찬가의 창작·보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1990년대 북한가요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생활, 관병일치 및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 등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고수 및 사회주의 강행군을 내용으로 하는 가요가 기본으로 창작·보급되었다.

---

16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방안」, p. 70.

166) 「내외통신」984호.

여섯째,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의 창작·보급이다.

1990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음악예술부문에서 기본으로 창작해야 할 노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노래, 조국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노래, 혁명전통에 대한 노래, 조국통일에 대한 노래라고 밝힌 바 있다.[167] 당면한 혁명임무는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전체인민을 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창작된 가요들 가운데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의 창작·보급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수년 동안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보다도 사회주의 고수 및 사회주의 강행군과 김일성·김정일 찬양을 내용으로 한 가요의 창작·보급이 대부분이었으며 1990년대 말에 들어서야 다시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창작·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1990년대 초 이래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및 구소련의 해체, 김일성사망 등 급속하게 전개된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조국통일보다는 체제동요 방지 및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김정일시대의 개막 준비에 주력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다음의 북한방송 보도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1998년 8월 7일 북한은 「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들을 창작·보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 창작된 노래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선의 대통운이 열리고 온 겨레가 그이의 영도따라 나아갈 때 통일된 조국,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일떠설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낙관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167)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p. 66.

일곱째, 연변을 통한 남한 대중가요 및 외국가요의 유입이다.

북한에서 남한 대중가요와 디스코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 사상적 동요와 가치관 변화가 확산·심화되면서 연변을 통한 남한 대중가요 및 외국가요의 유입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남한의 대중가요는 연변가요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애창되는 남한 대중가요는 흘러간 옛 노래도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빠른 템포의 노래가 유행하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북한 가요 창작에도 영향을 미치었는 바,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을 통한 빠른 템포의 가요 창작 및 보급이 그것이며,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모은 <휘파람>과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이 대표적인 곡들이다.

2. 영화

일찌기 레닌은 "우리에게 영화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168]이라고 했으며, 스탈린 역시 "영화는 대중선동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다. 임무는 그것을 우리의 수중에 넣는 일이다"[169]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은 밥벌이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혁명사업"[170]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는 혁명투쟁

168) Geoffrey Nowell, (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334.
169) Richard Taylor, *Film Propaganda: Soviet Russia and Nazi Germany*(London: I. B. Tauris, 1998), p. 49.

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의 힘있는 직관적인 선전선동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영화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다 돌릴 수 있으며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동시에 보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알기도 쉽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고 기동적인 예술"[171]이라고 하며, 영화의 대중성과 기동성을 최대한 구현하여 영화를 대중교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로 인해 북한주민들에게는 최고지도자가 '현지지도'한 영화를 비롯해 당에서 지정하는 영화는 소속집단별로 감상하고 감상 후에는 상호 토론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의 지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이 가장 즐기는 보편화된 대중문화는 영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는대로 북한은 문화시설이 낙후하고 여가를 즐길 만한 다양한 놀이문화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영화관 외에 생산현장내의 영화시설이나 시·군 문화회관 등에서도 영화를 쉽게 접하고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으므로 영화를 가장 즐긴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월 2~3편 정도의 영화를 자유로이 관람하며 영화주인공을 모방하는 등 영화를 통한 대중교양에 가장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영화는 여타 예술 장르에 비해 그 위상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이는 북한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선동 및 사상교양 도구로서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영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인식한 정책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겠다. 북한 영화의 질적 향상 및 위상제고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

170) 김일성,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p. 468.
171) 김일성,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p. 275.

이래 김정일이 영화에 대한 현장에서의 '지도'와 '당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부터이다. 또한 영화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것은 1973년 발간된 김정일의 저술 「영화예술론」이다. 「영화예술론」은 주체사상과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영화제작 방침을 제시한 북한영화 제작의 구체적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이다.

가. 영화발전의 기본방침과 방향

영화발전의 기본방침과 방향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영화 제작이다.

북한에서 영화는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중교양의 가장 중요한 선전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보(黨報)의 사설과 같이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영화'를 제작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영화가 지닌 태생적인 오락성과 대중성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는 이데올로기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또한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영화 제작은 영화 고유의 시각적 효과와 관람자의 자연스런 감정이입 등을 이용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정서적 감화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하겠다. 북한은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영화예술인들이 높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화예술인들이 높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혁명적 원칙에 튼튼히 서서 창작사업을 해야 호소성이 높고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혁명위업에 이바지할 좋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 제작이다.

1979년 10월 '숨은 공로자 따라배우기 운동'이 발기된 이래 북한은 '숨은 영웅'과 '숨은 공로자'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강조해 왔다.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영화작품의 시원은 1975년 제작·발표된 <산정의 수리개들>이다. 북한은 이 영화에 대해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송전탑 건설자들의 창조적 노력투쟁과 숨은 위훈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172] 이와 같은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숨은 공로자'와 '숨은 영웅'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 및 보급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와 당 정책 구현을 위한 대중교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 교양을 위한 영화 제작이다.

북한은 많은 청년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자라났으며 지주, 자본가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 본성과 악랄성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 교양영화를 제작·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173]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 교양을 위해서는 생산과 관리,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낭비를 반대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영화를 제작·보급하는 것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특히 기록영화의 제작·보급을 통해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 교양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

172) 「내외통신」1132호, 1998.10.22.
173) 김일성,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pp. 8~9.

넷째,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 제작·보급이다.

북한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특히 혁명적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줄 수 있는 혁명적 영화를 많이 만들어 보급할 것을 강조한다. 김정일은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혁명적 영화의 기본주제 방향을 당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혁명적 영화 제작에 있어서는 특히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을 중요시한다. 항일빨치산 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비롯해 인민정권 수립 투쟁, 토지개혁 투쟁, 산업국유화 투쟁, 당건설 투쟁, 조국해방전쟁 등 해방 전의 혁명투쟁과 해방 후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영웅적 사적들과 감동적인 사실들에 대한 영화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 창작방안의 하나로 사람들의 혁명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을 혁명화해 나가는 새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 필요하므로 긍정적 모범을 내세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로서 강조되는 것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화한 영화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한 영화'를 제작·보급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록영화 제작이다.

북한영화는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직관적 선전사업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 것이 기록영화이다.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기록영화와 북한의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영화는 직관교육교재 및 대외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양하기 위한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도 적극 활용된다. 북한에서는 기록영화 편수와 예술영화 편수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화제작 편수로만 본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기록영화가 예술영화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기록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정치사상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당적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기본수칙으로 되어 있다.

여섯째, 영화에서 음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 영화에서 특히 음악은 중요 구성요소이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훌륭한 영화로 되려면 반드시 좋은 노래가 있어야 하며, 예술영화들에서는 음악예술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와 음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174] 「영화예술론」에서도 "음악과 노래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넣는 것은 생활의 요구로 보나 영화의 특성으로 보나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여 영화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영화에서 요구하는 음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으며 사람들을 새생활 창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음악, 아름답고 고상한 인민적인 음악이다. 또한 영화의 삽입곡은 들을 수록 좋고 인상깊은 명곡이어야 하며 특히 대중이 부르기 쉽게 작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주제가인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명곡이며, 영화의 종자와 주체사상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

174) 김일성,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p. 468.

나. 1990년대 북한 영화의 특징

1990년대 북한 영화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장편 시리즈 영화 제작·상영이다.

1980년대 이래 북한에서는 장편의 시리즈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상영된 10부작 영화 <조선의 별>을 비롯해 <민족의 태양>, <이름없는 영웅들>, <림꺽정>, <민족과 운명> 등이 그것이다. <조선의 별>은 1920년대말 부터 1930년대 초까지의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영상화한 대작이며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한 첫 영화이기도 하다. 6부작 <민족의 태양> 역시 김일성 찬양물이다. 20부작 <이름없는 영웅들>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이다. 5부작 <림꺽정>은 벽초 홍명희의 원작을 영화화 한 것이며, 1999년말 현재 총 46부까지 제작·상영된 <민족과 운명>은 체제와 수령 홍보물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장편 시리즈 영화, 곧 '대작'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6.25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으며, 영화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혁명적 수령관'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또한 '대작'의 제작·상영 목적은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잘 나타나듯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수령에 대한 선전·홍보를 위한 것이다. 김정일의 1968년 담화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따르면, '대작'은 규모에서가 아니라 내용의 '대작다움'을 뜻한다.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 발전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 있게 그려야 하며, 투쟁 속에서 자라는 주인공의 성격과 혁명의 진리와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인식하는 인물들의 성장과정을 심도있게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작' 창작에서는 모든 역사적 현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작'에서는 의의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반드시 주인공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밝

혀야 하므로 정치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인물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올바르게 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서는 '대작'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적인 생활의 흐름을 기본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제작·상영된 장편 시리즈 영화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은 1992년 2월에 제1·2부가 동시에 개봉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다. <민족과 운명>은 김정일이 직접 종자를 잡아주고 김정일의 구상과 의도밑에 창작된 작품이며, 김정일이 직접 제작을 지도한 마지막 영화[175]로 알려져 있다. <민족과 운명>에 대해 김정일은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이론을 옳게 구현한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이며,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간들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이는 곧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민족의 자주성 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예술적 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리고 있다는 데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한다.[176] 조선의 넋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는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라고 하는 '대작' <민족과 운명>의 기본사상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그러나 수령과 당, 인민과 사회주의 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시사하는 바, <민족과 운명>을 관통하

175) 이에 관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직접 지도하기 곤난합니다. 그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창작사업을 지도하면서 주체문학예술건설의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이미 세워놓은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환원복구하도록 하였는데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당이 이룩하여놓은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p. 112.

176) 위의 글, pp. 61~112 참조.

는 핵심주제는 역시 '수령의 위대성 형상'과 '혁명적 수령관 구현'이라 하겠다.

둘째, 김일성 찬양 및 김정일 형상화 작품의 제작·상영이다.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과제들 가운데 첫 번째는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 형상 창조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 발표된 북한 영화작품들에서도 김일성 찬양 및 김정일 형상화 작품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예로 1993년에 제작된 37편의 극영화 및 기록영화들 가운데 90% 이상이 김일성과 김정일 찬양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서는 기록영화가 극영화보다 더 많이 제작되었으며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사후 제작·상영된 작품인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는 시리즈로 제작된 김일성 우상화 영화작품이다. 영화에서 김정일 형상화는 수령의 후계자로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업적을 지닌 인물로 형상되었으며, 특히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형상하였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들은 기록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으며, 1997년 1월 제작된 기록영화 <천하제일봉>은 대표적인 작품들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대외교류 활성화 및 대내외 영화제 창설이다.

1980년대를 통해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과 영화제 참가 및 합작영화 제작 등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서구 여러나라들과의 영화교류에서도 진전을 보였다. 한 예로 북한 4.26아동영화촬영소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만화영화를 수주해 원화제작과 채색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177] 4.26아동영화촬

영소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라이언 킹', '싱바', '레미제라블', '헤라클레스', '포카혼타스' 등의 만화영화를 수주해 제작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수편의 만화영화를 수주해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해말 남한의 영화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영화관계자들과 남북한 영화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남북한 영화 교류·협력의 전망이 밝아졌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북한의 대내 영화제는 1991년에 '조선영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며, 영화제에는 예술영화·기록영화·과학영화·아동영화 작품들이 출품되어 경쟁한다. 국제영화제는 1987년에 창설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 영화축전'이 있다. 평양영화제는 2~3년마다 개최되며 참가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북한과의 수교국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0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7회 평양영화제에는 6편의 일본영화가 특별 초대 작품으로 상영되었으며 영화제가 끝난 뒤에는 평양 시내 일반극장에서도 상영되었다.

넷째, 영화 작품의 소재와 주제의 다양화이다.

1990년대 북한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음악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 소재와 주제의 다양화이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를 통해서도 북한영화 제작은 김일성·김정일 찬양 작품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주의 고수 및 사회주의 강행군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 영화가 꾸준히 제작·상영되었다. 1987년 제작·상영된 <도라지 꽃> 이래 1990년대를 통해 북한영화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향토애'이다. 북한은 향토애를 조국애와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며, 이 영화는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땅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가꾸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

177) 「연합뉴스」, 2000.10.26.

국자로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세대의 사회진출 문제, 직업의식 및 직장생활 문제, 애정 및 결혼 문제 등을 다룬 작품들, 새세대와 낡은세대와의 사상투쟁 및 갈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또한 자력갱생에 의한 기술혁신의 문제를 주제로 다룬 경제선동 영화, 나태하고 형식적인 관료주의 문제를 다룬 영화, 환경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영화, 도농(都農) 격차 문제를 다룬 영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영화, 군민일치와 원군애민을 주제로 한 영화 등이 있으며, <불가사리>와 같은 괴수영화도 제작되었다. 특히 민간의 전설로 내려온 고려말의 야담을 계급사관으로 해석하여 영화화한 괴수영화 <불가사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 바, 하나는 북한영화가 소재의 다양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였다.[178] 1990년대를 통해 나타난 북한영화 작품의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는 공산주의 미풍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상교양 강화의 한 방편으로 공산주의 미풍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다량 제작·상영하였다. 공산주의 미풍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는 고아를 양육하는 처녀들의 미담, 최전선 초소 근무 군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집단 탄원한 처녀들의 미담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91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발표한 <님을 위한 교향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북한은 이 영화가 "광주인민 봉기의 거대한 역사적 의의와 대중적 인민항쟁에서 보여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실재한 사실들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179]

---

178) 「내외통신」982호.
179) 「내외통신」1138호.

Ⅴ.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과 전망

1. 변화양상

1990년대 이래 북한 대중문화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북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창작에 있어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 대중문화 창작의 이론적 근거인 기존의 문예관과 문예이론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론상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구소련 해체 등, 1980년대말 이래 급속하게 확산된 개혁·개방 및 민주화·자유화로 상징되는 세계사적 대조류에 따른 북한체제의 동요를 우려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등과 같은 일련의 사상운동을 전개해 왔는바,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를 체제결속 및 사상결집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중문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1990년대 이래 북한 대중문화 창작에 있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령형상창조, 당의 위대성 형상, 주체형의 인간전형 창조이며, 이는 최근 북한당국이 발표한 시나리오 및 텔레비전 극본 현상모집 요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0월 북한 조선영화문학창작사와 조선4.26예술영화촬영소가 공모한 예술영화문학과 텔레비전문학의 주제는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당의 혁명전통', '수령결사옹위·총폭탄·자폭정신', '강성대국건설', '반제반봉건의 역사', '당정책홍보' 등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이다.[180]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1990년대를 통해 북한의 대중문화

180) 「연합뉴스」, 2000.10.31.

에서는 다소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대중문화 창작·보급에 있어 이론 및 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체제동요 및 사상성 약화를 우려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서정성 강화이다.

「주체문학론」에 따르면 서정이란 감성과 사상적인 지향을 결합시킨 형상적 사유의 산물을 뜻하며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정서를 말한다.[181] 이와 같은 의미의 서정성은 여성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노래, 어린이에 대한 노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등과 같은 북한의 생활가요에서 잘 나타나며,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생활과 현실을 주제 및 소재로 한 영화작품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서정성은 북한 문학작품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라고 한다. 북한 대중문화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생활에서 시도 모르고 소설도 읽지 않고 지내는 목석같은 사람은 심장이 뜨거울 수 없다. 목석과 같이 딱딱하고 심장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성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성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혁명성과 뜨거운 인간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여 사람의 문화정서교양에 도움을 주자면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술어나 구호 같은 것을 라렬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182]

---

181) 김정일, 「주체문학론」, pp. 228~229.

북한은 생활가요 창작·보급의 의의와 중요성을 퇴폐가요의 침습방지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일면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사상조류'인 부르죠아 문예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시사하는 바, 대중문화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정치사상교양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서교양 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의 기능을 크게 인식하여 취해진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작품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이다.

1990년대를 통해 북한의 대중문화는 모든 장르에 있어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 추세를 보였다. 음악에서는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가요가 등장했으며, 영화와 소설작품에서도 다양한 소재와 주제가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신·구세대간 의식격차 문제, 새세대의 직업선택과 직업의식 문제, 도시·농촌간 생활격차 문제, 육체노동에 대한 직업적 차별의식 문제, 새세대의 연애와 결혼 문제, 여성의 자아정체성 문제,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 모성애, 고아를 키우는 처녀들의 미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래 북한 대중문화에서는 체제·수령 홍보 외에도 보통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사회적 미담들을 다룬 작품이 많아졌다. 북한 대중문화에서 작품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가 추구된 것은 정치성, 사상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체제·수령 홍보 위주의 기존의 작품들이 수용자인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대중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중문화에서 작품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는 작가, 예술인들의 개성이나 취향, 또

182) 위의 책, p. 20.

는 창의성에 따른 작품의 소재 및 주제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대중성 강화를 통한 대중에의 영합 추구이다.

1990년대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대중문화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성·사상성이 약화되고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휘파람>,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 생활가요의 창작·보급과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에서 엿볼 수 있으며,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오락성 강화와 남녀 애정문제 부각 및 남녀 애정관계의 감각적인 묘사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의 한국 유흥가와 대중가요의 등장은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를 극명하게 말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또한 유홍준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에 실린 다음의 글에서도 대중성이 강화된 북한 대중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한편으로 북한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남한식 '자본주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음도 보았다. 자본주의적 감각과 욕망의 표정들을 방북기간중 방영된 텔레비전 '련속극' '먼 훗날의 초상'에서 흘낏흘낏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젊은 여주인공이 얇은 옷을 입고 물에 빠져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섹시한 장면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 아련한 여운이 3일은 갔을 성싶은 짜릿한 감각문화였다.[183]

1998년 발표된 북한 소설의 한 대목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각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

---

183) 『중앙일보』, 1999.2.20.

> 자기를 지켜보는 경심을 본 그는 당황해하였다. 경심의 봉싯 솟은 가슴아래로 매력있게 흘러내린 잘쑥한 허리며 미츨하니 다듬어진 아래도리를 스치던 그의 눈길이 초점을 잃고 허둥거렸다.[184]

이 외에도 1995년의 희극극단 창단 역시 북한 연극의 대중성 강화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 대중문화의 대중성 강화 및 대중에의 영합 추구 경향이 북한 대중문화에서의 정치사상성 내지 혁명성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동안 변함없이 반복·재생되어 온 정치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작품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거부감으로 인해 사상교양 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방법론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 작품내용의 핵심은 변함없이 사상성 및 혁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면서도 다만 대중문화의 수용자인 북한주민들에게 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달, 주입시키는 방법을 간접적·우회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점차 기존의 대중문화를 외면해 온 대중의 관심과 흥미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조치일 뿐 대중문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 및 의도는 김정일의 담화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 생활세태를 반영한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순수한 생활이나 사랑만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이란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활이며 참다운 사랑도 혁명의 한길을 함께 걸어가는 청춘들의 건전한 사랑일것만큼 그 어떤 순수한 인간생활이나 청춘들의 사랑을 묘사하는것은 주체의 창작원칙에 맞지 않습니다.[185]

---

184) 리성식, "행복의 방아," 「조선문학」 (1998. 1), p. 61.

> 최근에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기천의 시 <휘파람>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래 <휘파람>이 창작되여 널리 보급되자 음악예술부문 창작가들이 그런 노래를 창작하는것이 당의 기본요구인것처럼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들의 높아가는 문화정서생활의 요구에 맞게 <휘파람> 같은 노래도 창작하여야 하지만 그런 노래를 기본으로 창작하여서는 안되며 그런 노래만 부르게 하여도 안됩니다.[186]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으로서 대중성 강화를 통한 대중에의 영합 추구란 외피적인 것에 불과하다.

넷째,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세대교체이다.

북한 대중문화 작가, 예술인들 사이의 세대교체는 1992년 김정일의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를 전후해 1세대 작가, 예술인들이 거의 퇴장하고 2세대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이 본격화됨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세대교체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문학부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11월 북한 문예총 위원장이 백인준에서 장철로 교체된 것, 1990년대 말 새세대 시나리오작가 원영실이 '현실주제의 만점짜리 영화를 만들어 낸 여성작가'로 떠오른 것, 그리고 1994년 9월에 열린 제4차 평양영화제에서 무명의 여배우 김경애가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수상한 것 등은 북한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세대교체를 말해 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새세대 스타로서 선풍

185) 김정일, "음악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 446.
186)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pp. 65~66.

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의 소속 연주가와 성악가들이 최고의 음악교육을 받은 20~30대의 연령층이라고 하는 것도 세대교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세대교체는 대중문화 창작에서의 서정성 강화, 소재 및 주제의 다양화, 대중성 강화를 통한 대중에의 영합 추구 등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양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대교체는 특히 구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외면하는 대중문화 수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을 의식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 북한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세대교체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의가 적지 않았음도 간과할 수 없다. 세대교체의 계기라고 알려진 김정일의 담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가 발표된 시기와 김정일에 대한 권력이양을 공식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시기가 거의 같다고 하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 1990년대를 통해 북한 대중문화는 정치성과 사상성, 혁명성을 원색적·노골적으로 강조한 기존의 창작 경향을 벗어나 정치성과 사상성을 흥미와 오락으로 채색하여 간접적·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당국이 의도한 바대로 대중문화의 수용자인 북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북한이 대중문화 수용자인 일반 주민들의 기호와 욕구를 의식하여 외피적으로나마 대중성과 오락성을 강화하고, 소재 및 주제에 있어 다양화를 추구하며, 수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을 위한 작품창작을 위해 작가, 예술인들의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성을 한층 더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위에서와 같은 변화를 통해 대중에게

접근가능한 대중문화 창작을 지향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문화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더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위에서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북한의 대중문화 수용자들은 작품 선택과 향유의 범위를 보다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작품 이해와 수용이 훨씬 더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문화는 수용자인 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전망

1990년대를 통해 북한 대중문화에 있어 변화를 초래한 요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사조·문물의 침투이다.

1990년대 북한음악의 특징에서 언급했듯이 김정일은 1990년 2월의 한 담화에서 서정성이 풍부하고 대중적인 다양한 주제의 생활가요 창작·보급의 의의와 중요성을 퇴폐가요의 침습방지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북한이 1980년대 말 이래 심화된 외교적 고립 및 경제난 타개를 목적으로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을 단행한 결과로서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상 북한은 이른바 '제국주의의 황색바람'으로 인한 체제동요 및 붕괴를 우려해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과 김정일의 각종 담화 및 연설 등을 통해 '황색바람'의 폐해와 방지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특히 1999년 6월 1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당 이론잡지 '근로자'의 공동논설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를 발표한 바도 있다. 논설의 요지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트리는

황색바람"이므로,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적 요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 싹부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개혁·개방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유입으로 인해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가치관 변화는 199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재러시아 벌목공,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하는 중국조선족, 식량구입을 위해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 국경 밀무역꾼,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외교관 및 무역관, 해외유학생, 각급 기관의 외화벌이 일꾼 등에 의해 해외정보 유입량이 증대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혁명성 약화와 함께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체제비판적 행위가 점차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국경지역에서부터 불어온 '황색바람'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다 더 빠르게 확산·심화되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에 걸쳐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미·일관계 개선 및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절대 요구되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에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우려하면서도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에 따른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및 혁명성 약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교육과 감시 및 통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체제안정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정치성·사상성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해 외피적인 변화를 가함으로써 사상교양의 강력한 도구로서의 대중문화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경제난 악화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사상성·혁명성 약화와 정권 및 체제에 대한 불신 심화이다.

1990년대를 통해 악화일로를 치달은 식량사정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정신이 피폐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상성·혁명성 약화와 함께 김정일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사회적 일탈행위가 급증하였음은 알려진 대로이다. 특히 식량난은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혁명성 약화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이며, 김정일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고 보겠다.

1990년대에 걸쳐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로서 나타난 현상은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와 동요계층의 증대,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량의 급증과 이에 따른 주민 상호간 정보유통의 증대, 그리고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이 잦아짐에 따라 야기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한 공식 배급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장마당(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가부장적 국가관에 바탕을 둔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당성 상실, 공식 배급체계의 기능약화로 인한 사회통제 이완, 장마당(농민시장)에서의 상호접촉 및 정보교환 증대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요컨대 위에서와 같은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들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이완 및 가치관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김정일정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계 붕괴와 음성적 시장경제의 활성화, 이로 인한 정치성·사상성 약화와 물질위주의 개인주의 팽배, 집단주의 정신 약화, 사회적 일탈행위 급증, 정권 불신 등 비사회주의적 정권이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중문화를 서정성과 오락성으로 채색하여 대중에로의 접근을 적극 꾀함과 동시에 대중교양 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 기능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염증 및 거부감이다.

장기간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대중문화를 통한 획일적이고 의도적인 사상성과 혁명성의 강조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염증과 거부감을 드러냄에 따라, 북한은 주민들의 염증 및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외피적으로나마 대중성과 오락성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고 본다.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염증 및 거부감을 초래한 요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온 가치관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북한 주민의 가치관은 당의 공식 가치지향인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 가치관에서 점차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심화되어가고 있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또한 1990년대를 통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장기간 변함없이 폐쇄적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 온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의 인간개조를 목적으로 한 집단적·획일적 교양·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내지 거부감이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만과 저항이 표면화된 사례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집단주의·획일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이 팽만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학습 및 당생활 총화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지정된 곡을 부르는 일이라든가, 당에서 지정한 사상성·혁명성 강화와 관련된 가요를 일과 후마다 노래학습을 통해 익혀야 하는 일, 또는 당에서 지정한 영화를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하는 일 등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해도 틀린 판단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를 통해 북한이 기존의 대중문화와는 달리 사

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며 서정성을 한층 높이고 오락성을 가미한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도록 한 주요 동인(動因)들 가운데 하나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심화되어간 가치관의 변화와 집단주의·획일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에서 비롯된 기존의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염증과 거부감이라 하겠다.

위에서와 같은 세 가지 요인들에 근거해 볼 때 1990년대를 통해 나타난 북한 대중문화의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 및 추세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후반 이래 연이어 성사되고 있는 대서구관계 개선과 성사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대미·일 관계 개선,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가속화된 남북관계 개선 등은 북한의 체제개방 확대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 및 미·일을 비롯한 대서구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경제회생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대중문화가 이념적이고 경직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에서 이미 북한주민들은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영향으로 인해 체제비판적 사고와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며 가치관의 변화도 가속화·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1990년대를 통해 외피적이나마 대중문화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대중문화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의도한 바대로 유도·강화했다고 평가한다면, 현재의 대중문화 양상을 이전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어리석음을 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도 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김일성·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작품은 종래와 같이 다량 창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령형상창조와 수령의 후계자형상창조는 북한 문예창

작의 기본과제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한 사상교양에 의해 김정일 권력세습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상성과 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김일성·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작품의 양산(量産)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북한의 대중문화는 사상성·혁명성을 핵으로 하며 주체사상이라는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상교양 및 대중선동의 유력한 수단이다. 또한 북한의 대중문화는 최고지도자의 '지도'와 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며, 대중문화의 주체이자 수용자인 대중의 여론에 대해 폐쇄적이다. 따라서 서구적 개념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의 대중문화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북한 대중문화의 이질성만을 부각시키며 비판적 시각을 고수하려 하기보다는 북한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상호 접속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대중문화의 비정치적·이념적인 요소들은 적극 수용, 이해하는 한편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한 대중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향유하려는 노력이 적극 시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북한 대중문화의 민족적인 요소들에 주목하여 남북한 대중문화의 동질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대중문화를 정치사상 및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대중문화를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분석, 평가하기보다는 남북한 대중문화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의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들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성·이념성이 강한 소수의 작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북한 대중문화의 전면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심층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 및 취지는 남북 대중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적극 도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수요자들의 북한 대중문화에 대한 정확하고도 수월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구성의 타당성과 서술에서의 구체성·체계성을 높이는 데에 나름대로의 주의를 기울였으며, 가능한한 많은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논문은 내용상으로 보아,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의 북한 대중문화 실태 분석에 있어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여타의 연구결과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차별화한다면 먼저 이 논문은 문예창작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및 관점에 준거하여 북한 대중문화의 분석틀을 설정했으며, 관련 북한원전에 충실을 기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문예창작물들 가운데 남한과의 대중문화 교류·협력이 성사된 바 있거나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들에 대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온 '대중문화'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남북한간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현두 편. 1989.「대중문화론」. 서울: 나남신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국토통일원. 1988.『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3집. 서울: 국토통일원.
권영민. 1990.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북한의 문학」. 서울: 을유문화사.
김병로. 1993.「김정일저작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노동은. 1995. “북한음악 50년, 회고와 전망.”「북한문화연구」3집.
문화체육부. 1996.「김정일 문예관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이강렬. 1995.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북한문화연구」3집.
이우영. 1994.「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이춘길. 1998.『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효인. 1995. “북한영화 50년, 회고와 전망.”「북한문화연구」3집.
존 스토리/ 박모 역. 1999.「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전경옥. 1998. “남북한의 대중문화.”「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통일연구원. 1990.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원 정보분석실.「김정일 주요논문집」.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북한의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진흥정책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_____ . 1998.「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 양상과 향후 남북 문화교류 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_____ . 1998.『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허버트 J. 갠스/ 강현두 역. 1998.『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서울: 나남출판.

<북한문헌>

강능수. 1990.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근본 특징에 대하여.”『근로자』 1월호.
김일성. 1980.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김일성저작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0. “현시기 문학예술인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김일성저작집』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1.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김일성저작집』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1.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1. “문화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김일성저작집』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2.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2.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김일성저작집』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2.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김일성저작집』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2.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문제에 대하여.”『김일성저작

집」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2. “혁명적 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김일성저작집」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3.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일성저작집」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4.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김일성저작집」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웅. 1991. “문학예술분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하여.”「조선어문」3월호.
_____. 1991.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조선문학」3월호.
김정일. 1973.「영화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83.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ㆍ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당이다.”「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83. “주체사상에 대하여.”「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87.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91.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_____. 1992.「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92.「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97.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97.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98.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 _. 1998.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 _. 1998. “민족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 _. 1998. “민족음악 발전을 위해 민족음악보급사업 강화.”『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 _. 1998.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김정일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류 만. 1991.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조선문학』1월호.
리수립. 1992.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조선문학』10월호.
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_____ . 1985.『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오승련. 199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리론에 대하여.”『조선문학』9월호.
장형준. 1993.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조선문학』5월호.
____ _. 1997.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 의의.”『조선문학』4월호.

최길상. 1998.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조선문학』7월호.
____ _. 1997.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 불멸의 기치.”『조선문학』1월호.
최언경. 1991. “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년대성격 창조문제를 두고.”『조선문학』5월호.
한중모. 1987.『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한중모·정성무. 1983.「주체의 문예리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허정숙. 1985.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대중적 당.”「근로자」10월호.
「로동신문」. 1974. 2. 18.

<외국문헌>

Adorno T. “On popular music.” in Simon Frith, Andrew Goodwin. eds.. *On Record: Rock, pop, and the written word.* London: Routledge, 1990.
Dodson, Donald. “Differentiating Popular Culture and Mass Culture.” in Everette E. Dennis et al. eds.. *Enduring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78.
Nowell, Geoffrey. 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Nye, Russel. *The Unembarrassed Muse: The Popular Arts in America.* New York: Dial Press, 1970.
Taylor, Richard *Film Propaganda: Soviet Russia and Nazi Germany.* London: I. B. Tauris, 1998.
Williams, R.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1965.